2026학년도 시대인재 LEET 서바이벌 제로

정답 및 해설

시대인재

2026학년도 시대인재 LEET 서바이벌 제로

기획 의도 및 방향

안녕하세요, 이번 서바이벌 제로 출제 담당자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서바이벌 제로를 풀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대인재의 첫 LEET 모의고사를 선보이게 되어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네요.

이 글을 읽고 계실 분은 아마 서바이벌 제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시험지를 풀고 오신 분일텐데요, 시험은 어떠셨나요? 쉽지만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기대보다 낮은 점수가 나오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준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대인재의 이름으로 세상에 처음 보여주는 모의고사인만큼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LEET 모의고사일까, 시기를 고려하여 출제를 해야 하면서도, 장학금이 걸려있는 만큼 변별력도 갖춰야 하고, 또 너무 지저분한 문항이어서는 안 되고, 배워갈 점도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이번 서바이벌 제로를 이렇게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을 거듭하여 여러분들의 LEET 성적 향상에 최대한의 도움을 주겠다는 일념으로, 최상의 LEET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립니다.

문항에 대한 해설을 제공드리기에 앞서, 학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획 의도와 출제 방식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최근 LEET(법학적성시험) 출제 방향

매년 응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LEET는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일정 난이도 이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 중에서는 2025학년도, 2023학년도가 상대적으로 '쉬운' 시험지로 평가되었으나, 이 역시도 2018학년도 이전의 구(舊) LEET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지였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수험생 프렌들리하게' 문항을 구성하겠다는 출제 기관의 말마따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던 수리추리 문항의 비중이 낮아지고 지문의 전반적인 분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일치 문항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추론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선지에서 변별력을 확보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상적인 사설 모의고사는 무엇인가?

LEET는 수능과 달리, 공식 출제기관의 모의고사 없이 1년에 단 한 번의 시험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기출문제만으로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많은 수험생들이 실전 경험을 쌓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 시중의 사설 모의고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원하는 모의고사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① 기출과 거의 유사한, '기출스러운' 모의고사
② LEET 실력을 키우기 위해, 배워갈 지점이 있는 모의고사
③ 실전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모의고사

'기출스러운' 시험지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타 사설 모의고사들은 전년도 LEET의 문항 배치, 선지 구성과 최대한 유사한 모의고사를 지향해왔습니다. 전년도 기출의 주제, 형식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한 것이죠. 이는 수험생들의 니즈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동안 어떤 LEET 기출도 '기출스럽지' 않았습니다. LEET는 매년 정말 다르게 나옵니다. 소재 선정, 주제 배치, 문항 구성, 영역별 난이도, 심지어 선지의 스타일이나 각 유형별 비중까지, 최근의 LEET는 단 한 해도 비슷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만약 2025학년도 LEET를 사설 모의고사로 출제했다면, 수험생들한테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문항 구성, 소재, 유형별 난이도의 측면에서 2024학년도 LEET와는 완전히 다르게 출제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상적인 사설 모의고사라면, 논리와 퀄리티는 '기출스럽게' 유지**하되, 그 **형식이나 구성에 있어서는 '기출스럽지 않게' 구성**하여, 수험생들한테 다양한 상황을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설 모의고사들은 시험지의 형식과 구성은 '기출스럽게' 출제하면서도, 문항의 논리와 퀄리티는 전혀 '기출스럽지 않게' 출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3. 시대인재 서바이벌 제로의 기획 의도

이에, 저희는 이상적인 사설 모의고사를 출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석박사들을 섭외하여 지문을 제작하고, 논리철학 연구자가 문항의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였으며, 다수의 LEET 초고득점자들이 문항을 배치하고 선지를 구성하여 '기출스러운' 퀄리티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석박사, 논리철학 연구자, LEET 초고득점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제작함으로써, 기존 모의고사 와는 구별되는 퀄리티를 목표하였습니다.

언어이해 출제 의도

이번 **언어이해**에서는, 전반적인 지문의 길이는 2025학년도 언어이해의 분량에 맞추되, 첫 문항에 어려운 지문을 배치함으로써 2024학년도 언어이해와 같은 충격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문항의 난이도 역시 2025학년도 언어이해와 유사하게 가되, 일부 지문은 기출보다 200자 가량 긴 분량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게끔 구성했습니다.

지문의 소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LEET 기출과 마찬가지로 시의성이 있으면서 해당 학문의 분야에서 뜨거운 주제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2~24] 칸트 지문의 경우에는 실제 LEET에는 나오기 어려운 개론적인 주제를 선정하였지만, 이 경우에는 실제 LEET에서 관련된 다른 주제의 철학 지문을 읽을 때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학습의 측면에서 배치하였습니다. 반면 [10~12] '인권의 발명' 지문의 경우, 실제 LEET에 등장할 법한 소재를 사용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느낌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한편 법, 기술, 생명 등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항들에서는 최근 기출 문항보다 난이도를 낮추되, 선지에서 기출에 빈출된 논리나, 헷갈리기 쉬운 함정을 배치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변별력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설 모의고사들이 단순히 정보량을 늘리거나, 애매한 선지를 다수 출제함으로써 난이도를 늘리려고 시도했던 반면, 이번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최대한 애매함 없이 깔끔하게 선지를 판단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에서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애매하게 느껴지는 문항은 항상 출제되었고, 이에 어느 정도는 '애매한' 지점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가령 30번 문항의 〈보기〉 판단의 경우 지문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론과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추리논증 출제 의도

이번 **추리논증**에서는, 문항의 배치를 2025학년도 기출과 유사하게 가되, 유형별 비중은 다르게 조정함으로써 새로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준킬러 문항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어, 2025학년도 기출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트 본시험과 시간 간격이 꽤 남아있는 시점인 만큼, '배울 점이 있는 시험지'가 되게끔 구성하는 것을 목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5학년도 LEET에서는 수리적 사고를 요하는 계산 문항의 비중이 적었지만, 최근 5개년 기출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계산 문항에서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하여 계산 문항의 비중을 다소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2024학년도 LEET보다는 계산 문항의 난이도와 실질적 비중을 낮춤으로써 2025학년도의 기조를 따라가려고 의도했습니다.

법률 문항은 본래 법학적 사고에 익숙한 수험생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으나, 현행법의 내용만 안다고 문항을 해결할 수는 없도록 선지의 논리를 구성하여, 법학 지식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실제 LEET의 지침을 따라가고자 하였습니다. 문항의 유형들은 대부분 최근 3개년 LEET 기출을 참조하였으나, 참조한 기출 문항에서는 활용되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몇 가지 추가하여 새로움을 주었습니다.

철학 문항, 실험 설계 문항은 전공 지식이 없더라도 지문을 충실하게 독해한다면 쉽게 선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강화약화'의 기준을 세심하게 조정하여 논리는 '기출스럽게'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18번 문항, 23번 문항의 경우 최근 기출보다는 다소 긴 분량을 가지고 있고, 추리논증치고는 독해의 난이도도 높아 아주 '기출스러운' 문항은 아니나, 지문의 구조나 선지의 논리 자체는 전부 기출에 근거함으로써 실제 LEET에 필요한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준킬러 문항이 다수 포진된 이번 시험지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평균을 유지하고자 33, 34번 모형추리 문항은 최근 모형추리보다는 쉽게 출제하였습니다. 다만 최소 한 문항은 최근 기출의 모형추리 난이도를 구현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35번 문항을 높은 난이도로 출제했습니다. 2025학년도 모형추리 문항을 모델로 만든 해당 문항은, 선지 판단 과정에 있어 해당 기출 문항을 넘어서는 포인트를 요구함으로써, 기출스러우면서도 기출스럽지 않은 느낌을 주려 의도했습니다.

과학/기술 문항의 경우, 낯선 개념이 많이 등장하지만 문항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독해만을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기출의 과학/기술 문항의 출제 방식을 따른 것으로,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주어진 지문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험지가 어려웠던 만큼, 뒷 문항의 실제 난이도보다도 정답률은 낮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앞으로의 방향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기출스러워야 할 부분'과 '기출스럽지 않아야 할 부분'을 분리하여,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험지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출제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하되, 회차에 따라 문항별 비중, 시험지 구성을 매번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는 데에 최적화되도록 출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시기에 따라 **3~4월**에는 기출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더라도 기출에서 요구하는 근본적인 능력을 요구하거나, 개론적인 소재들을 출제함으로써 실제 LEET 시험장에서 필요한 실력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험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험에 임박한 6~7월**에는 실제 LEET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성을 사용하고, 소재 역시도 '기출스러운' 내용으로 선정함으로써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을 목표하는 시험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학년도 시대인재 LEET 서바이벌 제로

언어이해 영역 정답표

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1	⑤	11	③	21	②
2	③	12	①	22	①
3	③	13	②	23	④
4	①	14	⑤	24	②
5	③	15	①	25	⑤
6	④	16	④	26	③
7	⑤	17	④	27	④
8	④	18	①	28	②
9	④	19	②	29	②
10	①	20	⑤	30	⑤

2026학년도 시대인재 LEET 서바이벌 제로

언어이해

1~3	헤겔에게서 형벌의 근거					
정답	⑤③③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법철학					
유사 기출	24언어 1~3번, 22언어 4~6번, 18언어 13~15번					

지문 총평

2018학년도 언어이해 13~15번과 소재에 있어 비슷하지만, '형벌'이라는 개념의 근거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법철학적 관점이 더 두드러지는 지문입니다. 언어이해에서 칸트/헤겔은 빈출 주제 중 하나이고,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법철학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 기출에 나온 내용들만큼은 숙지하시길 권합니다.

지문의 정보량이 많고, 논리도 촘촘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첫 지문부터 인지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간혹 이렇게 첫 지문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 전체 평균 점수가 크게 낮아질 정도로 멘탈에 영향을 주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1

정답	⑤
문항 유형	주제, 구조, 관점 파악

Comment **#개념 이해 #복합적인 정보 판단**

내용일치 문항이지만, 지문의 정보로부터 한 단계 더 추론해야 정오 판별이 가능한 문항이기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문과의 일대일 대응만으로 풀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헤겔이 정의하는 '이성', '범죄', '형벌'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독해했어야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넘어가기 어려운 문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당황하거나, 근거를 찾기 위해 지문으로 돌아가 시간을 많이 소요했다면 전반적인 시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지에 대응되는 지문의 문장 찾기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아니라, '지문의 핵심 개념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항**입니다. 따라서, 처음 읽을 때 이해를 못했다면 시간을 더 써서 고민해도 결국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 가장 정답 같은 것을 고르고 빠르게 넘어가는 것이 우월전략일 수 있습니다.

정오 판단

① 형법은 범죄자를 용서하고 교화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 헤겔이 밝힌 형법의 목적은 강제로서 범죄 자체를 지양하고, 법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아닌 처벌이 뒤따른다. 물론 범죄자에 대한 교화는 형벌 실행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동반될 수 있으나, 교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② 인간의 자유의지 실현에는 신체나 재산 등 물리적 대상이 필수적이다.

↳ '자유의지가 실재적으로 현존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대상 속에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문의 내용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현실에서 자유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대상, 즉 신체나 재산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처벌 역시 자유의지가 정립되어 있는 물건이나 신체에 강제를 가하는 것이다.

③ 형벌이란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보편화시킨 것이다.

↳ 범죄 행위는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타자에게 보편화한 것이다. 형벌은 이러한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키는 역할을 한다. 요컨대, 형벌이란 범죄자 자신에게서 단지 관념적으로만 현존했고 실재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행해졌던 범죄자의 자유의지의 실현, 더구나 범죄자 자신에게서의 실현이다. 형법은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그 자신에게서도 실현되도록 돕는다.

④ 범죄는 이성적인 사유의 결과로서 개별의지가 보편화된 결과이다.

↳ 범죄는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범죄 행위에는 이성적 범죄자가 스스로 옳다고 사유한 보편적인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범죄는 '스스로를 보편화한 개별의지의 외적인 강제를 통한 자기 관철'이다.

⑤ 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범죄의 지양을 위해 자유로운 주체들 간의 관계를 통제하는 것이다.

↳ 법의 본질은 '각 개인을 의지의 자유를 지닌 자유로운 주체로서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의 본질은 '억압이나 폭력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처벌은 '범죄자의 자유의지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이다. 이 과정에서 주체들 간의 외적 관계를 규제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다.

2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Comment **#핵심 논리 파악**

①, ②, ④, ⑤는 모두 지문의 문장으로부터 한 단계 더 추론할 것을 요구하며, 정답 선지는 이에 더해 헤겔의 핵심 논리를 파악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기부정적 성격'과 같은 표현이 등장할 때, 지문을 읽는 단계에서 이미 '왜 자기부정적이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빠르게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언어이해 고득점자들의 읽기 태도입니다.

정오 판단

① 한 사회의 형량 규정은 그 사회의 교양 수준과는 무관하다.

↳ "구체적인 형량은 사회의 안정성이나 문화에 따라 경험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사회의 문화 수준, 즉 교양 수준 역시 형량 규정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헤겔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사회가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더 잘 지탱한다고 보았으며, 범죄가 끼치는 해악의 정도는 사회의 수준과 반비례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양 수준이 높을수록 형량 규정은 낮아진다.

② 형법이나 처벌의 개념은 범죄 개념과 독립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 "처벌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만 조건적으로 뒤따르는 제2의 강제라는 점에 형법의 철학적 근거를 둔다". 따라서 형법이나 처벌 개념은 범죄를 정의하는 방식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며, 헤겔에게서 형법이나 처벌 개념은 범죄 개념과 독립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③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범죄의 내적 구조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다.

↳ "타자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려는 범죄자의 자유의지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의 부정을 통해 범죄는 무화된다". 지문은 범죄의 이러한 내적 구조를 '자기부정적 성격'이라고 말한다. 즉, 범죄는 타자의 자유의지를 부정할 뿐 아니라 범죄 자신을 부정하려는 성격을 가지며, 이로부터 처벌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④ 개인이 국가에게 자신의 자유를 위임했다는 사실은 형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헤겔의 입장에서 "인간의 자유는 강제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따라서 헤겔은 개인이 국가에게 자신의 자유를 '위임'했다는 사회계약론적 전제를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⑤ 미성년자나 중증의 정신질환자가 행한 행위 역시, 타인에게 외적인 피해를 야기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이다.

↳ 헤겔의 입장에서, 범죄는 이성적 사유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자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따라서 이성적 사유 능력, 혹은 의지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중증의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행위는 범죄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3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Comment **#개념 이해**

헤겔보다는 <보기>에 나타난 포이어바흐의 입장이 우리 현대인들의 직관에 더 부합하기에, <보기>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듯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3번 문항 역시 '헤겔'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고,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보기>를 잘못 읽어서라기보단,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와 달리한다", "~와 같이한다" 같은 표현에서 순간 거꾸로 읽어 실수했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 역시 실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실수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오 판단

① 포이어바흐는 형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데서 헤겔과 견해를 달리한다.

↳ 포이어바흐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본질이라고 본다. 헤겔은 형벌의 본질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보지만, 형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헤겔에게 있어 범죄 예방은 형벌의 부차적 기능이다.

② 포이어바흐는 범죄가 법을 침해하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된다고 주장한 데서 헤겔과 관점을 같이한다.

↳ 포이어바흐는 범죄가 법을 침해하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범죄를 '범행을 통해 초래된 해악'이라고 정의하며, 곧 범죄는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범죄라고 본다. 이는 범죄가 법을 침해하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된다고 주장하는 헤겔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헤겔의 입장에서 범죄가 범죄로 규정되는 이유는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 아니다. 헤겔에게서 범죄가 침해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현존인 법 자체이며, 따라서 처벌은 피해자가 입은 해를 보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자체를 지양해서 법을 회복해야 한다.

③ 포이어바흐는 비용과 편익의 비교라는 범죄의 심리적 발생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헤겔과 관점을 달리한다.

↳ 포이어바흐는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철학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 단지 '충동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의 불쾌'와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가해질 해악'을 비교하는 심리적 비용-편익 분석의 차원에서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포이어바흐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해질 형벌의 해악과 범죄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불쾌를 비교하여 범죄 여부를 결정한다고 본다. 이는 범죄를 '개별적이고 감성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분석하며 범죄의 철학적 본질을 탐구하고 존재론적으로 해명하여 형벌의 정당성을 도출하는 헤겔과 대비된다.

④ 포이어바흐는 범죄자가 범행 당시 충분한 이성적 본성을 지니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헤겔과 입장을 같이한다.

↳ 헤겔은 범죄자는 이성적 존재이며, 범죄 역시 개별적 자유의지의 보편화를 통한 이성적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헤겔과 입장을 같이한다'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포이어바흐는 범죄가 '쾌락을 통해 범행으로 충동'되기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쾌락이 욕구능력을 충동하여 스스로가 얻을 결과를 잘못 인지하게 하는 등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⑤ 포이어바흐는 범행에 뒤따를 처벌이 가할 해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 점에서 헤겔과 입장을 같이한다.

↳ 포이어바흐가 사람들이 범행에 뒤따를 처벌이 자신에게 가할 해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본 것은 맞다. 처벌의 해악을 위협으로서 제대로 인식했다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쾌락보다 처벌받을 때의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범행을 자제했을 것이다. 그러나 헤겔은 범죄의 발생 원인을 이러한 손익 분석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4~6	항체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AI 활용					
정답	①③④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과학기술(생명)					
유사 기출	24언어 22~24번, 20언어 7~9번					

지문 총평

지문 자체도 낯선 개념이 여럿 등장하고, 각 개념 간의 비례 관계, 함수 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완전히 파악해서 문제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문항 역시 수험생들이 헷갈릴 만한 포인트만을 짚어내고 있기에, 선지를 고민하다가 시간을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과학기술 지문은 과학기술만의 독해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독해력과 피지컬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문제 풀이에 필요한 만큼의 읽기 템포 조절, 시간 조절, 선지 판단 기준 등의 사소한 요소들이 오히려 점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 경험을 많이 쌓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4

정답	①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Comment **#정보 처리 #개념 간 관계**

지문에 생소한 개념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을 잘 정리했어야 옳게 판단할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특히 과학 지문에서는 비례 관계, 함수 관계, 포함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이 문제의 선지들은 이러한 '관계'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정오 판단

① EM2는 수용성, 열안정성 등 개발 변수들의 수치가 EM1과 동일할 수 있다.
↳ 5문단에 따르면, AI는 다른 개별 변수들의 값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정 개발 변수의 값이 개선된 새로운 변이를 찾아내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6문단에서 EM2를 얻은 2차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예로 볼 수 있으므로 결합력과 특이성 외 다른 변수들은 EM1에 비해 훼손되지 않았을 수 있다.

② 항체의 결합력은 항체의 단일 결합 부위와 항원의 인식 부위 사이의 결합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친화력'에 대한 설명이며, 결합력은 여러 결합 부위에서의 친화력이 누적된 강도를 의미한다. 결합 정도가 결합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는 반론이 예상되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결합력은 '다변수 함수'이므로 하나의 변수가 그 값을 '결정'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EM1은 연구팀이 1차 연구의 결과로 구성한 항체 라이브러리 내에서 결합력이 가장 높은 변이이다.
↳ 5문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M1은 항체 라이브러리 내의 최적 상태 변이로, 최적 상태 변이는 결합력과 특이성 모두 일정 기준을 넘으면서 두 성질 모두가 다른 변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값을 보이는 변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결합력' 하나만 놓고 보면 EM1보다 큰 변이가 존재할 수 있다.

④ 항체가 단백질과 비특이적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성이 높을수록 항체 신약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 항체가 단백질에 비특이적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것은 특이성이 작다는 것이다. 2문단에 따르면 항체의 특이성이 낮은 경우 표적 치료제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

⑤ EM2는 연구팀의 2차 실험 결과로 얻어진 변이로, 연구팀이 구성한 항체 라이브러리의 변이들 중 최적 상태 변이에 해당한다.
↳ 7문단에 따르면, EM2는 라이브러리에 없는 다른 변이들까지도 고려한 새로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선정된 최적 상태 변이이다. 연구팀이 구성한 항체 라이브러리의 변이들 중 최적은 EM1이며, EM2는 라이브러리에 없던 변이이다.

5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Comment **#개념 파악 #개념 간 관계 #말장난 #헛소리**

정확한 풀이를 위한 핵심은 각 물성/변수들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이때 함수 관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면 좋습니다. ⑤와 같이 단어 하나만 바꾼 함정 문제도 다수의 개념어가 등장하는 과학 지문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므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오 판단

① 항체 신약의 치료 효과는 면역 반응을 통해 달성되고, 치료 효과의 정도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정도와 비례한다.
↳ '항체 신약의 치료 효과는 면역 반응을 통해 달성'된다는 내용은 옳지만, 지문 3문단에 따르면 과한 면역 반응의 경우 치료효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두 지표가 '비례'한다는 추론은 옳지 않다.

② 항원 a와 결합하는 항체 A, B, C 중 항체 A에 K_d가 가장 작은 결합 부위가 있는 경우, 항원 a와의 결합력은 셋 중 항체 A가 가장 크다.
↳ K_d가 가장 작은 결합 부위는 그 '친화력'이 가장 큰 것은 맞다. 그러나, 결합력은 결합 부위의 수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A의 결합력이 가장 크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실제 반례 있음)

③ 연구팀이 구성한 항체 라이브러리에서 얻은 데이터로 학습한 머신러닝 모델의 경우 EM1 외에 새로운 최적 상태 변이를 예측하지 않는다.
↳ 연구팀이 구성한 항체 라이브러리는 결정된 계로, 그 내에서 최적 상태 변이는 EM1으로 확정된다. EM2는 후보군을 라이브러리 밖으로까지 확장한 경우의 최적 상태 변이이다.

④ 기존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개별 변수들의 검증 실험 방법은 동시 최적화 모델을 활용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 동시 최적화 모델을 활용한 개발 과정에서는 검증 실험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며, 검증 실험의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⑤ 연구팀이 다른 항원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항원의 결합 부위에 변이를 가하여 항체 라이브러리를 구성할 수 있다.
↳ 항체 라이브러리는 '항원'의 결합 부위가 아닌 '항체'의 결합 부위에 변이를 가하여 얻는다.

6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Comment **#개념 파악 #개념 간 관계**

'개발 가능성 관련 변수', '항체의 기전과 관련된 물성'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3문단에 제시되어 있고 다른 문항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망각한 경우 풀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각 변수들의 역수 관계, 비례 관계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추론이 필요하므로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겁니다.

정오 판단

① ㉠과 ㉡ 각각에 속하는 변이들의 결합력의 평균을 비교하면 ㉡이 더 높을 것이다.

↳ ㉡은 ㉠ 중에서도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이들로 이루어진 군이므로, 평균을 비교하면 ㉡이 더 높다.

② ㉡과 ㉢ 각각에 속하는 변이들에 대해 암 관련 성장인자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결합 부위의 개수를 조사한 결과 그 평균치가 모두 유사했다면, ㉡에 속한 변이들의 Kd의 평균이 ㉢에 속한 변이들의 Kd의 평균보다 높을 것이다.

↳ 결합 부위 개수가 동일하다면, 지문에 제시된 바 중 결합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화력만 남게 된다. 따라서, 결합력이 더 높은 ㉢에 속한 변이들의 친화력이 더 높을 것이므로, Kd의 평균은 더 낮을 것이다.

③ EM1은 ㉡에, EM2는 ㉢에 포함된 변이일 것이다.

↳ EM1은 기존 라이브러리 중 최적 상태 변이, EM2는 추가 실험을 통해 확장된 군 중 최적 상태 변이이므로 옳은 추론이다.

④ 최종 신약 물질이 ㉢이 아닌 ㉡에서 선정되었다면 이러한 결정에는 개발 가능성 관련 변수보다는 항체의 기전과 관련된 물성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 ㉢의 최적 상태 변이가 ㉡에 비해 항체의 기전과 관련된 물성인 결합력과 특이성의 조합이 더 최적인 상태일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 최종 물질이 선정되었다면, 그 외의 요인이 더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야생형은 ㉡, ㉢에서 각각 선정된 최적 상태 변이들과 비교했을 때 특이성이 더 낮다.

↳ 야생형은 ㉡, ㉢에 속한 모든 변이들 대비 세로축 방향으로 더 하단에 있다. 따라서 ㉡, ㉢의 최적 상태 변이뿐 아니라 그에 속하는 모든 변이와 비교해도 특이성은 야생형이 더 낮다.

7~9	자유주의 언론관과 공동체주의 언론관					
정답	⑤④④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사회					
유사 기출	23언어 10~12번, 22언어 22~24번, 18언어 30~32번					

지문 총평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은 상식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일 테지만, '언론관'이라는 특정 주제에 한하여 색다른 논의가 제시되기 때문에 마냥 통념만으로 독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난도를 의도하고 작성된 지문이지만, '보편주의와 다원주의의 딜레마'가 제시되는 부분부터 논의가 다소 추상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느꼈을 듯합니다. 또한, 지문에 제시된 각 입장이 완벽하게 배타적이거나, 한 입장이 다른 입장을 완벽하게 포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 입장의 관계를 파악할 것을 묻는 8번 문항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을 듯합니다. 이러한 사회학, 정치학 지문의 경우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 혹은 교양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출된 지문들에서도 겹치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을 배경지식으로 학습하거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필독도서 목록들에서 몇 권을 골라 독서하는 것도 이러한 지문 독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Comment **#내용일치**

①, ②, ⑤의 경우 단순 내용일치 선지이지만, '과대대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②에서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휘력의 영역이니, 반드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③, ④의 경우 다소의 추론이 필요한 선지이지만, 이 역시 지문의 특정 문장으로부터 한 단계 정도의 생각만을 요구하므로, 어렵지 않은 선지로 판단됩니다.

정오 판단

① 자유주의 언론관은 현대 사회의 실질적 다원성을 훼손할 수 있다.

↳ 다원성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언론관은 오히려 이념적 편향성을 강화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다원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유주의 언론관에 따른 언론 환경'이 '다수에 의해 형성된 주류 입장만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통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선지이다.

② 현대 언론의 신뢰 위기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과대대표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유주의 언론관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과대대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사회적 신뢰 하락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③ 공동체주의 언론관은 다양한 입장들이 단순히 공존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본다.

↳ "자유주의 언론관이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목표로 한다면, 공동체주의는 그 가치들이 공공선이라는 더 큰 목적 아래 조화를 이룰 것을 기대한다." 즉 공동체주의 언론관은 다양한 입장의 단순한 공존 이상의 가치, 즉 공공선이라는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며, 공공선이 그러한 가치들을 조화시킬 기준이 된다고

본다.

④ 공동체주의 언론관은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 중 하나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자유주의 언론관의 지향점이지만, 이는 공동체주의 언론관과도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고 보는 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공동체주의 언론관의 지향점이기도 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의 '단순히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라는 서술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언론의 역할 중 하나로 포함했다는 것으로 독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자유주의 언론관은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당파성을 억제하여 이념적 편향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자유주의 언론관은 오히려 이념적 편향성을 강화하였다

8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Comment **#개념 간 관계 #논리적 판단 #복합적인 정보 판단**

②, ⑤의 경우 공통적으로 '태도로서의 다원주의'의 필요조건이 '절충적인 보편주의'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문에 나타난 각 입장,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①, ③ 역시 단순히 지문의 특정 문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기 보단, 각 입장 간의 관계를 이해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오 판단

① 절충적인 보편주의는 자유주의 언론관과 양립 가능하다.

↳ 절충적인 보편주의는 자유주의 언론관이 주장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다원성에 대한 존중을 받아들인다. 또한, 지문에 제시된 자유주의 언론관의 내용만으로는 절충적인 보편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② 태도로서의 다원주의는 '절차적 정당성'과 양립 가능하다.

↳ 태도로서의 다원주의는 절충적인 보편주의를 필요로 하며, 절충적인 보편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둘은 양립 가능하다.

③ 공동체주의 언론관은 다원주의적 공론장과 양립 가능하다.

↳ 공동체주의 언론관은 다원주의적 공론장을 인정한다. 다만, 그러한 다원주의적 공론장이 공공선이라는 가치 아래서 조화될 것을 지향할 뿐이다.

④ 다원주의 이론의 극단은 절충적인 보편주의와 양립 가능하다.

↳ 다원주의 이론의 극단은 '대립하는 의견을 조율하거나 판가름할 수 있는 합리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합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충적인 보편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

⑤ 태도로서의 다원주의는 특정한 '보편'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양립 가능하다.

↳ 태도로서의 다원주의는 절충적인 보편주의를 필요로 하며, 절충적인 보편주의는 '절차적 정당성과 다원성에 대한 존중'을 '하나의 보편'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태도로서의 다원주의 역시 특정한 '보편'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양립 가능하다.

9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Comment **#맥락 파악 #말장난**

①, ② 선지는 특정 한 문장만을 가지고 판단하고자 한다면 애매하게 느껴졌을 수 있으며, 지문에서 나타난 각 입장의 맥락을 이해해야 확신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③의 경우, 5문단에 나타난 논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을 듯합니다. '실체적 진실'이라는 표현은 법학이나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관용어구이니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오 판단

① 자유주의 언론관은 가짜뉴스 규제 법안이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겠군.

↳ 자유주의 언론관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며, 정부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선지의 추론은 적절하다.

② 공동체주의 언론관은 가짜뉴스의 생산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 공동체주의 언론관은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책임의 내용은 '사회적 연대 강화', '공동체의 도덕적 규범과 가치 보호'이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의 생산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이다.

③ 다원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공약 불가능성은 가짜뉴스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지지하겠군.

↳ '공약 불가능성'은 각 주장들 사이의 우열은 가려질 수 없다고 보며, '보편적 사실'이나 '실체적 진실'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는 무엇이 잘못된 정보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축하며, 따라서 '가짜뉴스'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지지할 것이다.

④ 다원주의 이론의 극단은 가짜뉴스 생산자를 처벌하는 것은 권력 이외의 요인에 따른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 보겠군.

↳ 다원주의 이론의 극단은 '올바른 주장을 채택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배제하는 과정'을 '단지 권력에 의한 자의적 결정'으로 치부한다. 따라서, '권력 이외'라는 선지의 서술은 틀렸다.

⑤ 절충적인 보편주의는 양 극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짜뉴스의 생산자들 사이에도 일정한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군.

↳ 절충적인 보편주의는 대립하는 입장 사이에도 각기 다른 합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10~12	서간체 소설과 인권의 발명					
정답	①③①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역사학)					
유사 기출	25언어 1~3번, 25언어 7~9번					

지문 총평

2025년 언어이해 시험은 학문적 가치와 교양적 함의를 갖추면서도 흥미로운 독해가 가능한 지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3번 지문은 19세기의 범죄 소설을 소재로, 법과 문학의 상호작용을 다루며 다양한 소설의 서사를 활용했습니다. 7~9번 지문은 푸코의 『성의 역사』에서 그리스·로마 시대의 소년 동성애를 다룬 지문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지문으로 린 헌트의 『인권의 발명』(2007)을 선정하여 제1장의 일부를 발췌하고 윤문하였습니다. 이 책은 18세기의 서간체 소설을 정치사적 맥락에서 해석하여, 감정 혁명이 인권의 발명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영향력 있는 저작입니다. 이 책은 법학, 정치학, 역사학, 문학의 교차점을 다루면서 역사적 사유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학제 간 융합을 추구하는 출제 경향에 부합합니다.

문항 구성에서도 기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습니다. 10번은 2025학년도 1번처럼 작품 비교 방식을 활용했고, 11번은 2025학년도 3번과 유사하게 지문 내 다양한 입장들의 비교를 요구했습니다. 12번은 2025학년도 9번과 마찬가지로 〈보기〉에 지문 외적 관점을 제시하여 양립 가능성을 묻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10

정답	①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Comment **#선후 #포함**

독자들이 해피엔딩을 간청한 이유는 글의 핵심 맥락인 동일시 때문임을 판단했어야 ①을 고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여자 주인공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했으므로 ②에서 이를 비교하는 선지로 출제하기에 적합하였고, 독해 시에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었다면 보다 편하게 선지를 판단할 수 있었을 듯합니다. 지문에 제시된 작품의 순서와 작품이 발표된 순서가 다르다는 점, 성별의 경계를 넘은 공감은 특정 작품만의 특징이 아니라 서간체 소설 전체의 특징이라는 점 등을 놓치지 않고 파악했어야 하는 등 디테일한 독해가 필요한 문항이었습니다.

정오 판단

① 『클라리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소설이 감정적 동일시를 항상 유도하지는 않았음을 보여 준다.
↳ 6문단에 따르면, 『클라리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작가에게 해피엔딩을 간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지문에 나타난 이러한 반응은 독자들이 클라리사와 자신을 감정적으로 동일시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선지와 같은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신 엘로이즈』의 경우와 달리 『클라리사』는 아버지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여성의 모습을 강조했다.
↳ 2문단에 따르면, 『신 엘로이즈』의 주인공 쥘리는 권위적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생 프뢰를 포기한다. 반면, 『클라리사』는 아버지가 강요한 구혼자를 피하기 위해 러브레이스와 사랑의 도피를 한다.

③ 18세기 서간체 소설은 『파멜라』, 『클라리사』, 『신 엘로이즈』가 차례대로 출간되며 전성기를 누렸다.
↳ 『파멜라』는 1740년에, 『클라리사』는 1747년에, 『신 엘로이즈』는 1761년에 출간되었으며, 1문단에 따르면, 이 세 작품의 출간 시기가 18세기 서간체 소설의 전성기에 해당한다.

④ 『파멜라』와 『신 엘로이즈』의 남성 독자들은 심리적 공감의 대상을 자신의 성별로 한정하지 않았다.
↳ 7문단에 따르면 서간체 소설의 여자 주인공에 대한 동일시는 성별의 경계를 넘어섰으며 그 예시로 쥘리에 대한 남성 독자들의 공감을 제시하고 있다.

⑤ 서간체 소설 읽기는 개인적 경험으로서의 공감을 창출하여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관념인 인권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 1문단에서 '과연 우연일까'라고 글을 시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한다. 이 지문은 서간체 소설이 인권의 탄생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글이며, 이러한 주장 하에서 서간체 소설이 공감을 통해 '인권'이라는 관념을 창출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11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Comment **#인식 대상 #반사실적 가정**

인식 주체가 동일하더라도 인식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①을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문의 '~A라면 ~B'라는 구문은 A가 B의 요건임을 함축하므로, 이를 인지하여 지문의 입장에 따라 ③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어야 합니다. ⑤번 선지에 있어서는, 기독교와 서간체 소설은 대비되고 있으며 제퍼슨은 서간체 소설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기독교와 제퍼슨을 이항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 선지였습니다.

정오 판단

① 볼테르는 18세기 서간체 소설을 통해 확산된 루소의 인권 개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 볼테르는 루소의 서간체 소설에 대해 "쓰레기"라고 비판하였지만,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소개한 인권 개념에 대해 비판한 것은 아니다.

② 일부 독자들은 파멜라가 실재하는 인물이며 미스터 B와 실제로 결혼했다고 믿고 이를 축하했다.
↳ 3문단에서 서간체 소설은 등장인물을 실재하는 인물처럼 느끼게 했다고 서술되었지만, 이는 독자들이 허구적 인물과 실재 인물을 혼동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A를 B처럼 느낀다는 것이 A를 B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지문에서 나타난 독자들의 반응을 두고 이들이 소설의 등장인물을 실존하는 인물로 믿은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 독자들의 강렬한 감정적 몰입과 이성적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

③ 리처드슨과 루소가 서간체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 인권 개념이 정치적 변화를 산출할 수 없었다.
↳ 4문단에서 "(서간체 소설에 의한) 각성이 없었다면…정치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반사실적 가정문으로 전자가 후자를 산출하기 위해 꼭 필요했다는 인식을 표현한다.

④ 미국 독립선언문의 초안에는 제퍼슨의 개인적 독서 경험에서 비롯된 내면적 감정이 직접 드러나 있다.

↳ 미국 독립선언문의 초안에는 인권 개념이 드러나 있지만, 제퍼슨의 독서 경험과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인과 관계에 있지만 구분되며, A가 B를 산출한다고 해서 B가 A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⑤ 제퍼슨과 기독교는 모두 사후 세계의 평등은 상상하면서도 현실 세계에서의 평등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 독립선언문의 초안의 선언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 세계에 존재하는 영혼 간의 평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12

정답	①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Comment **#모순 #논의 영역 #이항대립**

모순은 동일한 것이 동시에 P이면서 ~P인 것입니다. 서간체 소설과 고딕 소설은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두 대상에 대한 진술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했고, ②, ③에 대하여서는 서간체 소설과 고딕 소설의 대립 지점을 잘 파악했어야 합니다. 루소와 리처드슨의 소설은 고통에 대한 묘사가 공감을 유발한 예에 해당하며, <보기>의 맥락상 파악할 수 있듯 고딕 소설은 아감벤의 '배제적 포함'을 지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⑤번 선지는 논의 영역을 묻는 선지인데, 경계를 설정할 수 없다면 아감벤의 논의 영역에서 벗어나므로 중립적입니다.

정오 판단

① 고딕 소설에서 타인의 고통을 다루는 방식은 서간체 소설을 인권과 연결하는 린 헌트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겠군.

↳ <보기>의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가령'으로 이어지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서간체 소설과 고딕 소설은 모두 타인의 고통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그 방식은 구분된다.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내부에 대한 공감과 외부에 대한 냉담함 혹은 잔혹함은 함께 작동할 수 있으므로 고딕 소설과 서간체 소설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즉, 서간체 소설에 대한 린 헌트의 주장은 내부에 대한 공감을, 고딕 소설에 대한 <보기>의 설명은 외부에 대한 냉담함을 다루는 점에서 서로 대상이 다르므로 충돌하지 않는다.

② 루소는 쥘리의 비극적 결말을 통해 고통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독자들에게 쾌감을 유발하였겠군.

↳ 감각적 자극이 인권의 보편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예시는 사드의 고딕 소설이다. 루소의 서간체 소설은 공감이 성별 경계를 넘은 예이며, 독자들에게 쾌감을 유발한 것은 포르노그래피의 특징이다.

③ 파멜라에 대한 공감과 미스터 B에 대한 분노는 성별과 신분의 경계선을 그음으로써 특정 독자들의 공감을 가로막았겠군.

↳ 18세기 서간체 소설은 남성 독자들이 여성 주인공에게 공감을 한 예이다. 따라서 파멜라에 대한 공감과 미스터 B에 대한 분노는 공감이 성별 경계를 넘은 결과이다.

④ 사드 후작이 포르노그래피로 밀고 나간 고딕 소설은 인권의 진보를 배제적 포함과 연결하는 아감벤의 해석과 상충하겠군.

↳ 고딕 소설은 외부에 대한 냉담함 혹은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감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⑤ 노예제, 사법적 고문, 잔혹한 형벌의 폐지는 인권의 진보 과정이 배제적 포함에 불과하다는 아감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하군.

↳ 노예제, 사법적 고문, 잔혹한 형별의 폐지는 인권의 보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감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아감벤을 지지하는 근거가 아니다.

13~15	메타윤리학적 자연주의와 열린 질문 논증					
정답	②⑤①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철학)					
유사 기출	25언어 13~15번, 24언어 10~12번, 23추리 22번, 22추리 22번, 19추리 19번, 10언어추론 20~22번					

지문 총평

지문은 2025학년도 언어이해 기출 지문들보다는 200자 정도 긴 분량을 가지고 있으며, 철학적 표현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에 부담이 있었을 듯합니다. 다만 지문의 난이도에 비해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으며, 지문의 맥락을 잘 따라가면서 각 입장의 논지가 무엇인지, '열린 질문 논증'이 도덕 자연주의를 어떤 논리로 비판하는 것인지, 도덕 비자연주의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읽었다면 문제 풀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리논증의 철학 지문들은 대개 학부 수준의 논리철학, 인식론 내용이 출제되기에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언어이해의 경우 철학 전공자들에게도 비교적 낯선 소재의 철학 지문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에, 배경지식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글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는 능력**과, **철학적 '논증' 자체에 대한 익숙함**이 있다면 이렇게 낯선 소재가 출제되어도 무난하게 독해할 수 있습니다.

13

정답	②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Comment **#복합적인 정보 판단**

정답 선지의 경우, 4문단의 '열린 질문 논증'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확실히 맞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고, 도덕 자연주의에게는 의미론적으로 적합한 해명을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비자연주의에게는 존재론 및 인식론적 측면에서 적합한 해명을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했어야만 확신을 갖고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한편 ⑤의 경우 'F이면 G이다'로 착각할 경우 매력적인 오답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이밖에 ①, ④ 역시 지문에 나타난 문장을 재구성하거나, 둘 이상의 문장을 참고해야 정오를 판단할 수 있었으므로 모든 선지를 확신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이해는 내용일치 문제에서도 단순히 지문의 특정 문장만으로 정오 판별이 가능한 선지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글의 맥락을 이해하거나, 둘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선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오 판단

① 도덕 비자연주의가 거짓이라면, 오로지 자연적 속성만이 존재한다.

↳ 지문에 따를 때, 도덕 비자연주의가 참이라면,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 속성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도, 세계에 자연적 속성만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② '열린 질문 논증'은 도덕 자연주의가 의미론적으로 적합한 해명을 제공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 무어의 '열린 질문 논증'은 도덕 자연주의가 주장하는 '도덕적 술어'와 '자연주의적 분석' 간에 의미론적 동치가 일어나기 어려움을 지적한다. 더불어, 지문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추론할 수 있듯, 도덕 자연주의는 의미론적으로 적합한 해명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는 옳은 선지로 판단할 수 있다.

③ 도덕 비자연주의는 '직관'의 사용으로 인해 사람들 간에 도덕적 일치가 일어난다는 점을 설명한다.

↳ 지문에 따르면, 직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덕적 의견 대립을 갖는다는 것이 도덕 비자연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이다. 이는 직관의 사용이 도덕적 일치를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도덕 비자연주의가 '우리에게 도덕적 일치가 일어난다는 점을 설명한다'라는 서술은 아예 틀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도덕 자연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술어들은 존재론적 검약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다.

↳ 도덕 자연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술어들은 자연적 속성을 의미하며, 자연적 속성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속성들이다. 따라서 도덕 자연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술어들은 존재론적 검약 원리를 만족한다.

⑤ F가 A를 통해 분석된다면, A에 "G"가 등장할 때, "x는 F이다"가 참이라면 "x는 G이다"가 참이다.

↳ 지문에 따르면, F가 A로 분석된다는 것은 "x는 F이다"가 "x는 A인 그러한 것이다"와 동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가령 우리는 "총각"을 "기혼자가 아닌 성인 남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x는 총각이다"가 "x는 기혼자가 아닌 성인 남성이다"와 동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때의 분석항에는 "기혼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⑤에 따르면 "x는 총각이다"가 참이라면 "x는 기혼자이다"가 참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부조리하므로, 거짓이다.

14

정답	⑤
문항 유형	주제, 구조, 관점 파악

Comment **#간접적으로 제시된 정의 파악**

객관적으로 말해, 어려운 선지는 없는 문항입니다. 다만 지문에서 '도덕 실재론'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 실재론'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서 시간을 더 쓴 수험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문 마지막 문장의 '이러한'을 통해 도덕 자연주의와 비자연주의가 도덕 실재론의 두 하위 부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테고, '도덕적 속성이 실재한다고 보는 점에서 도덕 자연주의와 결을 같이' 한다는 도덕 비자연주의에 대한 서술을 통해, 둘의 공통점인 '도덕적 속성이 실재한다고 보는' 입장이 도덕 실재론의 정의임을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어떠한 입장이나 개념에 대한 간접적인 정의를 주는 것이 리트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므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오 판단

① 어떠한 도덕적 술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은 성립하지 않는다.

↳ 지문으로부터 '도덕 실재론'은 '도덕적 속성이 실재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때 지문에서 도덕 실재론이 주장하는 도덕적 속성의 존재가 도덕적 술어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관련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선지를 옳다고 추론하려면, 그러한 추론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어떤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꼭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대상이 실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만약 어떠한 도덕적 술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도덕적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② 어떠한 행위가 선한지에 대한 인식론적 부담은 ㉠에서만 일어난다.

↳ '도덕 실재론' 중 '도덕 비자연주의'는 '인식론적 부담'을 진다. 그러나 도덕 실재론이 아닌 입장들이 인식론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지문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다.

③ 도덕 자연주의와 달리 도덕 비자연주의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문에서는 도덕 비자연주의 역시 도덕적 속성이 실재한다고 봄을 말하며 도덕 비자연주의가 '도덕 실재론'의 일종일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마지막 문장에 '도덕 실재론의 이러한 두 입장'이라고 표현했고, 그 앞에 나타난 '두 입장'은 도덕 자연주의와 도덕 비자연주의이므로, 그 둘이 도덕 실재론에 해당함이 명시되어 있다.

④ ㉠에 따르면 '즐거움'은 특정한 신경 체계의 작동 방식으로 환원될 수 없다.

↳ 지문으로부터 우리는 도덕 자연주의가 도덕 실재론의 일종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도덕 자연주의에 따르면 즐거움은 신경 체계의 작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

⑤ ㉠에 해당하는 모든 입장이 반드시 존재론적 검약 원리를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 지문에 따르면 도덕 비자연주의가 존재론적 검약 원리를 만족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도덕 실재론에 해당하는 모든 입장이 존재론적 검약 원리를 만족한다고 하면, 도덕 비자연주의가 존재론적 검약 원리를 만족한다는 것은 자명하게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자명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도덕 실재론에 해당하는 모든 입장이 반드시 존재론적 검약 원리를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15

정답	①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Comment **#논의 영역**

<보기>는 '수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지문의 두 입장이 제시할 수 있는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②는 논의 영역의 차이를 묻는 것으로 2010년 MEET 언어추론에 출제된 논리를 참고한 것이며, ③의 경우 도덕비자연주의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④는 강화와 약화가 바뀌었고, ⑤ 단정할 수 없는 것을 단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답이 됩니다. 이러한 문항을 접근함에 있어,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확신이 드는 명백한 정답을 빠르게 골라낸 후에는 여타의 선지에 대해 큰 시간 투자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태도**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정오 판단

① 'X가 Y를 수반한다'는 것이 X가 Y보다 근본적임을 함축한다면, 도덕 자연주의는 이것을 도덕적 술어들에 대한 자연주의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근거로 볼 것이다.

↳ 지문에 따르면, 분석은 보다 근본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술어들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보기〉에 따를 때 도덕적 사실을 자연적 사실이 수반한다면 이는 자연적 속성이 도덕적 속성보다 근본적이라는 것이므로, 도덕적 속성을 자연적 속성을 통해 환원할 부분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② 'X가 Y를 수반한다'는 것이 X가 Y와 의미론적으로 동치라는 뜻이 아니라면, '열린 질문 논증'은 자연적 사실이 도덕적 사실을 수반한다는 믿음을 반박할 수 있다.

↳ '열린 질문 논증'은 X와 Y가 의미론적으로 동치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만일 X가 Y를 수반한다는 것이 X와 Y가 의미론적으로 동치라는 주장을 함축하지 않는다면, 열린 질문 논증의 논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논증을 적용해서 반박할 수 없다.

③ 도덕 비자연주의자들은 자연적 사실이 도덕적 사실을 수반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도덕적 속성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존재자이기 때문에 존재론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 5문단에 따르면 도덕 비자연주의에서는 도덕적 속성이 자연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6문단에 따르면 도덕적 속성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없다고 본다.

④ 도덕 자연주의자들은 도덕 비자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직관'이 경험적 관측에 수반한다고 설명함으로써, 도덕 비자연주의를 논박할 수 있을 것이다.

↳ 비자연주의의 약점 중 하나는 그들이 주장하는 '직관'이 과연 실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그런데 직관이 경험적 관측에 수반할 수 있다면, 이는 비자연주의를 논박할 수 있다기보다는 직관의 존재를 지지함으로써 비자연주의를 옹호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⑤ 홍길동이 w1과 w2에서 서로 다른 도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면, 이는 도덕적 속성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므로 도덕 비자연주의와 상충할 것이다.

↳ 수반이나 환원을 거부한다고 해서 꼭 도덕적 속성의 실재를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 비자연주의는 도덕적 속성이 실재하며, 이는 자연적 사실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도덕 비자연주의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적 사실이 도덕적 사실을 수반한다는 믿음을 거부할 수 있다.

16~18	혁신 저항					
정답	④④①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사회, 경제					
유사 기출	25언어 10~12번, 23언어 13~15번, 18언어 30~32번					

지문 총평

'상대적 이점, 복잡성, 복귀성, 혁신성, 인지된 위험' 등 생소한 개념이 다수 등장하고, 이들이 혁신 저항과 갖는 상관관계가 복잡하게 제시된 지문입니다. 그러나 지문을 이해하면서 읽었다면, 각각의 개념을 서술한 내용이 직관에 따른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을 겁니다. 가령 사용하기 어려울수록 저항이 커진다든지, 대체제가 있다면 굳이 혁신적인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충분히 상식적인 것으로 납득하며 읽을 만합니다. **이런 지문의 특징은, 일정 독해력 이상의 수험생과, 일정 독해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 사이에 체감 난이도가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정 독해력 이상의 학생이라면, 각각의 개념을 단지 낯선, '암기해야 하는' 혹은 '선지를 보고 지문으로 돌아가 찾아 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면서 읽고 쉽게 문제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독해력 이하의 학생이라면, 각각의 개념을 전부 낯선 정보로 인지하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라고 느꼈을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선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예상됩니다. 선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문을 읽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독서 등을 통해 글을 읽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 훈련이 병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16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Comment **#개념 간 관계 #말장난**

②의 판단 근거가 '의향'이 아닌 '능력'이라는 점, ⑤의 판단 근거가 '수용'이 아니라 '확산'이라는 점에서 단순 말장난 같다는 '저항'을 느낀 수험생도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첫째로,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말장난은 없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②, ⑤는 단순한 말장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②의 경우, 1문단을 읽으며 '혁신 저항을 느끼게 하는 세 요인' 중 하나로 '소비자 특성'을, '소비자 특성'의 하위에 각각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분류하였는가를 묻는 선지입니다. 이때 두 특성이 각각 의향과 능력에 대응된다는 포인트는 기출에서도 종종 등장한 논리입니다.

정오 판단

① 람은 혁신 저항과 수용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다고 보았다.

↳ 3문단에서 Ram은 혁신 기간 동안에는 혁신 저항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소비자 특성에 따르면, 소비자의 연령 등에 따라 혁신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향은 달라진다.

↳ 소비자 특성에 따르면 소비자의 연령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속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혁신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요소이다. 한편 혁신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향'은 심리적 특성과 관련되는데,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독립적'인 것으로 지문에 제시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이라는 정량적 요소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이라면, '심리적 특성'은 그와는 구분되는 각 개인의 내적인 요소를 말하므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무인주문결제시스템은 혁신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일자리 감소를 야기하여 고용시장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 1문단에 의하면 무인주문결제시스템 등의 서비스는 단순 업무처리나 고비용, 저효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의 예시로 제시된 직업도 계산원으로 혁신성이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다. 따라서 혁신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고 추론할 수 없다.

④ 혁신 저항은 혁신에 수반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외부의 요인에 의해 강도가 변할 수 있다.

↳ 지문에 따르면, 혁신 저항은 '혁신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혁신이 원인이 되는 변화', 즉 '혁신에 수반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다. 또한, 이러한 저항의 정도는 대체 가능한 제품의 유무, 소비자 특성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자체에 내재한 요인이 아닌, 그 외부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옳은 선지이다.

⑤ 확산 메커니즘에 의해, 혁신 수용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메시지 유형과 특성에 따라 혁신 저항이 감소할 수 있다.

↳ 확산 메커니즘은 혁신 수용 과정이 아닌 확산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이다.

17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Comment **#개념 간 관계 #수리적 감각**

음의 상관관계/양의 상관관계를 묻는 문항은 언어이해든 추리논증이든 가리지 않고 자주 등장하는 문항입니다. 단순히 지문의 정보를 잘못 매칭해서 틀린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비례/반비례 관계 등에 대한 수리적 사고력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이에 대해 특별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수리적 사고력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그런 문제는 그냥 버린다'라는 식의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이해/추리논증 각각에서 수리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리적 감각은 관련 문제를 자주 접하고, 적절한 대응 요령을 익혀야 향상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항이 나올 때마다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오 판단

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을수록 혁신 저항은 증가한다.

↳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을수록 인지된 위험이 증가하므로 혁신 저항은 증가한다.

② 무인결제시스템 이용 시 주문 과정이 낯설수록 혁신 저항은 증가한다.

↳ 주문 과정이 낯설다는 것은 친숙함이 덜하다는 것, 즉 복잡성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혁신 저항은 증가한다.

③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나 혜택이 클수록 혁신 저항은 감소한다.

↳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는 가치나 혜택이 클수록 인지특성의 상대적 이점이 높아지므로 혁신 저항은 감소한다.

④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혁신 저항은 증가한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전 소비로 돌아가려는 복귀성이 낮아질 것이므로 혁신 저항은 감소할 것이다.

⑤ 새 제품, 서비스를 다른 이들보다 빠르게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있다면 혁신 저항은 감소할 수 있다.

↳ 소비자 혁신성은 '사회체계 안에서 하나의 개인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상대적으로 혁신을 먼저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새 제품, 서비스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있다면 소비자 혁신성이 높은 것이므로 혁신 저항은 감소한다.

18

정답	①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Comment **#사례 적용 #개념 파악**

지문의 개념들을 잘 파악하는 것을 넘어, 각 개념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언어이해/추리논증에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위 문항은 그러한 '적용'의 측면에서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위 문항을 틀렸다면 <보기> 문항에 약해서라든가, 선지를 고르는 기준이 잘못되었든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문의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문 총평에서와 마찬가지로, 독해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오 판단

① 터치식 차량 공조 조절기는 기능적으로 볼 때 복잡성이 높고 복귀성이 낮아 소비자들이 느끼는 혁신 저항이 클 것이다.

↳ 터치식 차량 공조 조절기는 기능적으로 복잡성이 높지만, 기존 기능에서 크게 변한 것 없이 디자인적인 개선이 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능적인 복귀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버튼식을 사용하는 여타의 수많은 차량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므로, 복귀성은 높은 것이다.

② 만약 A기업이 터치식 차량 공조 조절기의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면 혁신 저항이 낮아질 수 있다.

↳ 복잡성은 혁신기술에 대한 이해 정도와 관련된다. 이용자가 기술의 사용법을 이해하고 친숙해질수록 제품이 이용자에게 수용되는 속도가 빨라지므로, 사용법 교육을 한다면 복잡성이 낮아져 혁신 저항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③ 만약 A기업이 보급형 전기차를 제조하는 B기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용 테스트를 진행하였다면 혁신 저항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 고급 내연기관차를 제조하는 A기업의 고객과 보급형 전기차를 제조하는 B기업의 고객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를 수 있고, 소비자 혁신성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혁신 저항을 낮게 만들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선지의 '수 있다'라는 약한 서술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A기업에서 차량의 광고 커뮤니케이션에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 기존에 신문지를 통해 광고하는 방식에 비교하여 이용자의 혁신 저항이 달라질 수 있다.

↳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효과는 혁신 수용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전반적인 이용자의 혁신 저항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종류에 따라 혁신 저항이 달라질 수 있다.

⑤ 소비자들은 터치식 차량 공조 조절기가 고장이 잦을 것 같다는 이유의 심리적 저항을 보고하였지만, 그들의 반응은 실제로 조작 방식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 소비자들이 보고한 저항 요인은 결함이나 오류 발생 등의 인지된 위험이지만 실제로는 조작 방식의 어려움 등 복잡성 요인이 더 많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는 6문단의 요지이기도 하다.

19~21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과 공정이용					
정답	②⑤②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법					
유사 기출	24언어 28~30번, 18언어 33~35번					

지문 총평

최근 기출들과 비교하자면 지문의 난이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문제 자체가 너무 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의 특정 부분을 찾아 푸는 방식보다 글의 맥락에 따라 판단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선지들을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일치처럼 보이는 문항에도 다소간의 추론을 요하는 선지들이 섞여 있었지만, 글의 맥락을 잘 파악했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 의도적으로 무난한 정답 선지들을 앞쪽에 배치하여 체감 난이도를 낮추려 하였습니다.

19

정답	②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Comment **#개념 이해**

내용일치 선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문의 특정 문장과 대응되는 선지를 구성하기보다는 두 문장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오를 판단해야 하는 문항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 문제는, 지문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는 능력을 더욱 강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정답 선지의 경우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론 역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항의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이해를 기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과의 대응 관계로 정오를 판단하려 했던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오 판단

① DMCA는 UGC 플랫폼에 대하여 사전 검열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지 않다.
↳ 4문단 마지막에서 플랫폼은 'ISP와 마찬가지의 일정한 법적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이 일정한 법적 면책의 내용은 글 전체를 통틀어 2문단 앞부분에서의 사전 검열할 책임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UGC 플랫폼의 사전 검열 책임은 ISP와 마찬가지로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은 기존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 마지막 문단에서 요구하는 국제적 협력은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창작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등의 우려에서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여 저작권 침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독해할 수 있다. 그리고 1문단 앞부분에서 기존 저작권법의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공익 증진이라고 하였으므로, 지문이 요구하는 국제적 협력은 이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와 즉각적 전파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4문단의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무한 복제와 즉각적 배포 가능성은 기존 저작권 보호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확산은 저작권 보호 체계를 약화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공정이용은 저작권 보호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디지털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서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마지막 문단에서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사용자 생성 콘텐츠 간 충돌'을 언급하였다. 즉, 공정이용은 저작권 보호와 충돌 관계이므로 상호보완 관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3문단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 글로벌 확산은 분쟁을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DMCA는 ISP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인식했을 때에 한하여 사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 사전적인 조치가 아닌, 차단 또는 삭제라는 사후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문에서도 명시적으로 사전 검열할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언급되었다.

20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Comment **#개념 간 관계**

②, ③의 경우 좁음/넓음이라는 범위(집합)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선지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언어이해/추리논증에서 고루 활용되는 것이므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오 판단

① ISP의 책임의 크기가 클수록, 저작권자의 권리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 지문에서 말하는 ISP의 '책임'은 모두 저작권을 보호할 책임을 의미한다고 독해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선지이다.

② 한국의 저작권법은 미국의 저작권법에 비해 표현의 자유를 더 좁게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한국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다 보호되어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는 보다 좁다고 할 수 있고, ISP에게 '사전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를 미국에 비해 더욱 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한국에서 공정이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된 콘텐츠가 미국으로 유통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
↳ 한국은 미국에 비해 공정이용의 범위를 더 좁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인정된 콘텐츠라면 미국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④ 한국의 ISP는 미국과 달리, 저작권자의 통보를 받지 않더라도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
↳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ISP에게 저작권 침해의 '예방'까지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 침해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한국의 저작권 보호 체계는 미국과 달리, ISP가 저작권 침해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 한국과 미국 모두 사전에 침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적으로 차단 또는 삭제할 책임을 부과한다. 따라서 '미국과 달리' 부분이 틀린 선지이다.

21

정답	②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Comment **#사례 적용 #말장난**

<보기>에 나타난 저작권자와 이용자 측의 권리의 경합은 지문의 구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공유권'이라는, 지문 외의 요소를 도입한 B국이 한국, 미국과 비교하여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의 '국가 간', '국가 내'를 구분하게 하는 포인트는, 다소 치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출제된 바 있는 함정이므로 문항 제작에 활용했습니다.

정오 판단

① B국의 저작권자들은 한국의 저작권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일 것이다.
↳ <보기>에 나온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하면, B국이 채택한 '공유권' 모델은 한국의 저작권법보다 더욱 개방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를 더 보호하는 저작권법은 한국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최소한 한국에서 덜 보호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② ㉠은 사용자의 권리 증대를 목표하지만, 저작권자의 권리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보기>에 나온 내용상 공유권은 명백히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권리이면서도, 1문단 후반부를 보면 저작권자의 승인을 여전히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도 고려함을 알 수 있다.

③ ㉡은 공정이용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보기>의 2문단에서 제시된 '새로운 법'은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공정이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문단의 공유권은 저작자의 권리 중 일부를 사용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지문 3문단에서 말하는, 권리가 없는 것을 전제하는 공정이용의 개념과는 별개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④ ㉡이 주변 국가들과 합의한 결과물이라면, B국 내에서의 분쟁은 이전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 지문 마지막 문단 후반부에서 국제적 협력은 국가 간 분쟁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제시되었다. 그러나 '국가 간' 분쟁과 'B국 내'에서의 분쟁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⑤ B국이 ㉡이 아닌 DMCA를 도입했다면,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관계는 보다 명확해졌을 것이다.
↳ <보기>의 2문단에 나온 새로운 법은 제시된 바에 따르면 DMCA와 차이가 없다.

22~24	칸트의 판단력과 합목적성					
정답	①④②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철학)					
유사 기출	24언어 10~12번, 22언어 4~6번					

지문 총평

칸트는 리트에 여러 번 출제된 바 있는 철학자고, 보통은 인식론보다는 도덕철학, 법철학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이 지문은 칸트의 인식론에 대한 내용으로, 칸트 철학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3권의 「비판」 모두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부 수준의 배경지식으로는 큰 도움을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경험세계'와 '자연세계'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점, 이 둘은 인간의 인식과는 구분된다는 점 등은 철학적 텍스트를 많이 읽어본 수험생에게는 쉽게 파악되었을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워낙 개론적인 소재이기에 이 내용으로 리트에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칸트의 이러한 사상적 기반은 다른 철학자를 다루는 지문을 읽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내용은 배경지식으로 알아가시길 권합니다.

지문은 단순히 정보량을 늘려서 난이도를 높이기보다는, **각 개념의 논리적 관계를 촘촘하게 서술**함으로써 어렵게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이 지문 독해의 핵심은, **'지성', '이성'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이해하며, **판단력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22번과 23번은 모두 '지성-판단력-이성'이라는 지문의 개념 관계를 집요하게 물음으로써, 정말 이 지문을 이해한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의도했습니다.

22

정답	①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Comment **#개념 파악 #내용일치**

지문의 서술을 잘 파악했다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각각의 개념이 겹치는 논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각 개념에 대한 서술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지만, 지문에는 각각의 「비판」, '감성', '이성', '판단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내용과 차이점을 파악했어야 합니다.

정오 판단

① 『판단력비판』은 자연의 합목적성의 근거를 자연에 내재한 일관된 통일성에서 찾지 않는다.
↳ 칸트에 따르면, 경험세계에는 자성에 의해 통일되지 않은 무규정적이고 다양한 우연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경험을 일관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그러한 우연적인 것들이 합목적적이라고 가정된다. 다시 말해 자연이 합목적적이라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순전히 상정되는 것이다.

② 『판단력비판』은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에 이어 세 번째 철학의 부문을 구성한다.
↳ 지문의 내용 중 "판단력은 철학의 고유한 부문을 이루지는 않지만"에서 옳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칸트에게 철학의 두 부문은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으로 나뉘며, 「순수이성비판」에서 지성이 이론철학을, 「실천이성비판」에서 이성이 실천철학을 형성한다. 판단력은 이 둘을 매개한다.

③ 『순수이성비판』은 도덕적인 삶을 위한 법칙을 탐구하는 상위의 인식능력을 주된 관심사로 둔다.

↳ 도덕적인 삶을 위한 법칙을 탐구하는 상위의 인식능력(=이성)을 주된 관심사로 두는 것은 「실천이성비판」이다. 「순수이성비판」은 인식을 위한 법칙과 개념을 산출하는 '지성'이라는 상위 인식능력이 주된 관심사이다.

④ 『실천이성비판』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경험세계의 유한한 조건들에 의해 제약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의 목표는 인간 행위가 인과법칙으로 환원될 수 없는 구별된 원리에, 즉 감성세계를 뛰어넘는 초감성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한 초감성적인 것이 자유이고, 자유의 능력으로서의 이성이다. 결국 자유의지 자체는 초감성적인 것인 것으로서 경험적이고 유한한 것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다. 다만 자유가 만들어낸 '결과로서의' 특정한 유한한 사건은, 다른 유한한 사건에 의해 제약되고 영향받을 것이다.

⑤ 『실천이성비판』은 경험적인 세계에서 최초의 원인은 언제나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 '경험적인 세계'는 지문의 '감성세계'를 말한다. 실천에서는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가 감성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원인, 원인 없는 원인, 즉 최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감성세계를 형성하는 모든 것의 최초의 이론적 원인인 것은 아니다. "감성적 세계에서 인과의 사슬은 무한히 이어져 있기에 어떤 사건의 최초의 원인을 찾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23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Comment **#논리 구조 파악 #문제 해결**

여기서의 '㉠문제'는 '판단력'이 상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지문의 논리 구조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3번 문항은 이러한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판단력이 어떻게 해소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물론 정답 선지는 내용일치 수준으로도 골라낼 수 있었겠지만, **만약 틀렸다면 지문의 핵심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것으로**, 독해력에 있어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오 판단

① ㉠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로부터 발생한다.

↳ '문제'는 인간을 자연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이라는 이원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모순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칸트는 자연과 자유, 지성과 이성, 이론과 실천, 감성적인 것과 초감성적인 것이라는 이원론적 쌍으로 철학을 구성한다. 이러한 양자가 매개되기 위해서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② ㉠은 '판단력'이 어떻게 자연과 자유를 매개하는가를 보임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 '판단력'은 자연과 자유를 매개하여 ㉠을 해결한다. 앞선 선지들의 해설을 참조한다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③ ㉠은 인간이 자연세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도덕세계에서는 자유롭다는 결론으로부터 발생한다.

↳ 인간의 자연적 측면은 인과법칙에 지배받는다. 즉,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인간 행위는 인과법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원리에, 즉 감성세계를 뛰어넘는 초감성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다". 도덕세계, 실천에서만큼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이 자연세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도덕세계에서는 자유롭다는 결론으로부터 둘을 이론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판단력' 개념이 요구된다.

④ ㉠은 지성과 이성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각자의 법칙을 수립하는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 지성과 이성이 각자의 법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둘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지성은 이성 없이 자연법칙들을 산출하고, 이성은 지성 없이 도덕법칙들을 산출하며, 따라서 자연과 자유는 상이한 법칙들로 이루어진 서로 무관한 독립적인 영역이다. 판단력에 의해서야 양자 영역이 매개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다시 말해 각각의 영역이 매개되고, 연결된다는 것은 두 영역이 그럼에도 독립적인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는 언제나 상이한 두 항의 연결일 뿐이다. 판단력에 의해서도 두 영역은 일관적으로 통일되지는 않는다.

⑤ ㉠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자연 속에서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이유가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 우리가 자연세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도덕세계에서는 자유롭다는 결론으로부터, 인과법칙에 지배받는 인간의 자연적 측면과 그것에 독립적인 자유의지의 도덕적 측면이 하나의 인간 내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칸트의 철학에서 이 둘을 매개하여 ㉠을 해결하는 것은 '판단력'으로, 판단력으로 ㉠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덕적인 실천이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험적 세계에서 실현"될 수 없다.

24

정답	②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Comment **#지문 흐름 파악 #추론**

각 선지에 대응하는 지문의 문장을 파악해야 하고, 그로부터 한 단계의 추론을 더해야 합니다. 만약 **선지의 근거가 되는 문장 자체를 찾지 못했다면 처음 지문을 읽을 때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찾았음에도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면 추론 능력 혹은 선지 판단의 기준에 보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오 판단

① 윤리적이고 좋은 삶은 실천이성만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

↳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실천이성의 궁극적인 목적인 윤리적이고 좋은 삶을 현실에서 실현하려면 판단력이 필요하다. 판단력에 의해 자연은 인간의 목적에 의해 자유롭게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자유는 자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반성적 판단력의 합목적성 원리는 사물에 대한 탐구로부터 지지된다.

↳ 반성적 판단력의 합목적성 원리는 사물에 대한 탐구로부터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반성적 판단력의 합목적성 원리가 사물에 대한 탐구를 추동한다. 지문에 따르면 "합목적성의 원리들은 자연탐구의 기초에 놓여있으며", "자연의 다양한 경험적 형태를 질서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제적으로 작용"하고, "자연 탐구를 지도"한다. 여기서의 '자연'이란 감성세계의 물리적인 사물들을 일컫는다.

③ 개념이나 법칙과 같은 보편적인 것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판단력은 작용할 수 있다.

↳ "반성적 판단력은 오직 특수한 것만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도 작동한다. 특수한 것이 주어져 있고 보편적인 것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판단력은 그러한 보편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렇게 작용하는 판단력은 반성적 판단력이다.

④ 실천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행위의 동기를 주어진 도덕법칙 아래 종속시키는 것은 규정적 판단력의 작용이다.

↳ "규정적 판단력이란 보편적인 것이 주어져 있는 경우 특수한 것을 그 아래에 포섭하는 판단력"이다. 선지에서 '구체적인 행위의 동기'는 '특수한 것'에, '도덕법칙'은 '보편적인 것'에 대응된다. 따라서 참인 선지다.

⑤ 자연이 어떤 지성에 의해 창조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자연이 그 자체로 합목적적으로 통일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 칸트에게서 자연 그 자체는 합목적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자연이 사실상 그렇게 고안되었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는 순전히 우리 주관에 의해서만 그렇게 상정되는 것이다.

25~27	Langchain / transformer 언어모델 테크닉 비교					
정답	⑤③④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과학기술(기술)					
유사 기출	24언어 4~6번, 25언어 22~24번					

지문 총평

2~5문단은 각각의 '언어모델 테크닉'에 대한 설명을 나열한 것으로, 글의 구조 자체는 쉽게 구성된 편입니다. 그러나 글을 쉽게 읽었더라도, 각각의 테크닉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용된 개념, 정보를 잘 처리하지 못했다면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5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Comment **#개념 파악 #말장난**

해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①~⑫를 전부 무난하게 넘기고 ⑤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①, ②, ⑫는 각 서술의 주체를 잘 파악해야 하며, 모두 '사용자'가 주체라는 동일한 패턴의 함정을 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처리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③에 대하여서는 '활용 가능성의 제약'이 '유연성으로 인한 복잡성 유발'로도 읽힐 수 있지 않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가능성의 제약과, 그 가능성의 폭이 넓음을 뜻하는 '유연성'은 배치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⑤가 명확한 정답이므로, 두 개의 선지가 헷갈리지만 확신의 정도에 차등이 있는 경우 과감하게 더 명확한 선지를 고르고 넘어가는 연습 역시 필요합니다.

정오 판단

① ㉠은 그 핵심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입력 시퀀스의 모든 요소 간 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편향성이 작업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선지의 앞 부분은 옳으나, 지문에서 제시된 트랜스포머의 단점은 '데이터 자체'에 내재된 편향성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편향성이 결과에 반영된다는 것은 아니다. 2문단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사용자의 기본 능력에 크게 의존적이어서 사용자가 잘못된 추론 과정을 생성할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①과 유사한 논리의 문제로,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사고 체인은 사용자의 기본 능력이 아닌 '모델의' 기본 능력에 의존한다.

③ ㉢은 그 활용 가능성의 제약으로 인해 과도한 복잡성을 유발하고, 이는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디버깅을 어렵게 한다.

↳ 랭체인의 과도한 복잡성은 그 활용상의 '유연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지 활용 가능성의 '제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4문단에서 알 수 있듯, '활용상의 제약'과 '활용 가능성의 제약'은 다르다.

④ ㉣은 자율적 AI 에이전트의 행동을 정의하고 제어하는 방법론으로, 사용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도구를 선택한다.

↳ ①, ②와 비슷한 논리이다. 5문단에 나타난 것처럼,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필요한 도구 선택의 주체는 '자율적 AI 에이전트'이지 사용자가 아니다.

⑤ ㉠~㉤은 추상화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각 테크닉의 적용 범위와 유연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 6문단에 나타난 것처럼 '추상화 수준'의 차이는 각 테크닉의 적용 범위와 유연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다.

26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Comment **#개념 파악 #개념 간 관계**

각 테크닉의 특성(모듈성 등)이 어떠한 작업 결과로 이어지는지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메타인지적,' '메타학습' 등 지문에 등장하지 않은, 바람잡이 단어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의 모든 단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거나, 지문에 등장하는 단어와 일대일 대응 관계를 특정하려는 시도는 시험장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오 판단

① 철수 : 트랜스포머의 데이터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 체인의 추론 능력을 결합하여 데이터의 편향을 인식하고 이를 보정하는 메타인지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겠군.

↳ 사고 체인의 추론 능력은 '데이터에 내재된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3문단). '데이터의 편향을 인식하고 이를 보정'하는 것은 오류를 교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옳은 설계 계획이다.

② 영희 : 랭체인의 모듈성과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의 자율성을 결합하면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작업을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작업 흐름을 구성하게 하는 메타학습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구현할 수도 있겠군.

↳ 랭체인은 모듈 간의 결합을 통해 더 복잡한 작업 흐름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의 자율적인 AI 에이전트는 자체적으로 목표와 수단을 수립/선택한다. 따라서 이 둘을 결합하면 자체적으로 새로운 작업을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작업 흐름을 구성하는 시스템이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

③ 진욱 : 높은 추상화 수준의 모델 구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론 과정보다는 토큰 간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는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겠군.

↳ 구체적인 추론 과정을 명시하는 사고 체인은 개별 토큰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트랜스포머보다 높은 추상화 수준을 가지므로(6문단), 이는 옳지 않은 설계 계획이다.

④ 정환 :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판단 기준이 도입된 교정 메커니즘을 함께 도입한 시스템을 생각해볼 수 있겠군.

↳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그 자율성으로 인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제어, 즉 '교정' 메커니즘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지는 옳은 설계 계획이다.

⑤ 수진 : 각 추상화 레벨에서의 결정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다층적 프레임워크의 설계를 통해 XAI가 구현될 수 있겠군.

↳ 여러 구성이 다층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에서 특정 출력의 도출 과정을 추적하고 설명(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하는 것은 XAI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따라서 이는 옳은 설계 계획이다.

27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Comment **#사례 적용 #<보기> 파악 #개념 간 관계**

구조도를 보고, 상호작용이 '양방향'적이라는 것을 캐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문만을 바탕으로 "계층적 구조"라는 단어를 일방향적으로 이해할 경우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오 판단

① 구조도의 각 레이어 간의 상호작용은 상위 레이어의 요구사항이 하위 레이어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구조도를 보면 상위 레이어는 하위 레이어와 추론 과정 명시화/모듈성/확장성 등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상위 레이어에 의해 하위 레이어의 구조 변화가 수반될 수 있으며, 지문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 변화의 유연성은 전체 구조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구조도의 최상위 레이어에 위치하며 전체 시스템의 자율성을 관리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위 레이어들의 개별적인 성능 최적화를 방해할 수 있다.

↳ 지문에 따르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개별 구성의 최적화 '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구조와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전체 구조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복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부 구성의 최적화를 억제할 수 있다.

③ 구조도는 각 테크닉 간의 계층적 관계를 보여주지만 실제 구현에서는 이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때로는 계층의 경계를 넘어선 직접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지문과 보기를 보면 테크닉 사이에는 분명한 계층 관계가 있지만, 그 상호작용은 단방향적이지 않으며, 하위 레이어가 상위 레이어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다.

④ 상위 레이어와 하위 레이어 간의 상호작용은 계층적이기 때문에 사고 체인의 추론 성능 향상이 트랜스포머의 셀프-어텐션 수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 7문단에서 각 컴포넌트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구조도에 따르면, 트랜스포머와 사고 체인 사이의 상호작용은 '양방향'적이며, 상위 레이어의 피드백이 하위 레이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⑤ 트랜스포머는 입력 시퀀스의 모든 요소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사고 체인과 상호 작용한다.

↳ 트랜스포머가 사고 체인과 작용하는 방식은 셀프-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이는 입력 시퀀스의 모든 요소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28~30	비극의 역설과 역겨움의 윤리					
정답	②②⑤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미학, 예술)					
유사 기출	24언어 16~18번, 21언어 4~6번, 19언어 10~12번, 12언어 33~35번, 24추리 23번					

지문 총평

지문에서는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므로 다소 혼란스러웠을 수 있으나, 지문의 서술 자체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았을 듯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문항의 경우 단순히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풀 수 없고, 그것을 사례에 적용할 것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에서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8

정답	②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Comment #재진술

내용일치 문항이지만, 지문의 표현을 선지에서 대체하여 표현하고 있기에 재진술(paraphrase)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이라면 틀릴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재진술을 파악하는 능력은 리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지만, 어휘력과 독해력, 글의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쉽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이 약한 학생이라면, 기출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의 표현 대체까지는 맞게 판단되는 것인지,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오 판단

① 흄은 개인에게 실제로 닥친 비극과, 허구로서의 비극은 구분된다고 본다.

↳ 흄은 '비극의 역설'에 대한 설명으로 '허구성'을 제시하며, '키케로의 연설과 같이 허구가 아닌 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흄의 입장에서 허구성이 있는 비극과, 허구성이 없는 현실의 비극은 구분된다.

② 흄은 비극적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이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큰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 흄은 비극이 허구성을 결여한 경우에도 그러한 형식적 완성도로인해 쾌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흄은 허구성을 결여한 현실의 비극적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않는다. 흄에 따르면, 비극이 실제이든, 허구이든 부정적 감정은 발생하며, 단지 그러한 부정적 감정 이상의 쾌락 또한 비극으로부터 야기되기에 사람들은 비극을 향유한다.

③ 누스바움은 역겨움이 대상과 관련된 관념적 요소로부터 유발된다고 본다.

↳ 누스바움은 역겨움이 '대상이 지닌 사회적 맥락이나 속성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유발된다고 본다. '사회적 맥락이나 속성에 대한 믿음'은 '관념적 요소'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④ 누스바움은 인간의 본질을 자각하게끔 하는 대상이 역겨움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 누스바움은 역겨움의 본질을 '인간 자신이 유한한 동물적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대상을 거부하는 감정적 표현'이라고 본다. 여기서, '인간의 본질'은 '인간 자신이 유한한 동물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역겨움을 일으키는 대상들은 이러한 우리의 본질, 동물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역겨움의 대상이 된다.

⑤ 누스바움은 사람들이 역겨움을 느끼는 대상의 목록이 인간 종의 생물학적 특징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주장에 반대할 것이다.

↳ 누스바움은 역겨움이 '진화적 기제'와는 구분된다고 보며, '사회적 맥락이나 속성'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인 것, 개연적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람들이 역겨움을 느끼는 대상의 목록은 인간 종에 대한 자연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시대나 장소,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29

정답	②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Comment **#사례 적용 #비판**

과거 MEET 언어추론 문제에서 자주 나오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 문항을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다만 LEET 언어이해의 성질에 맞게, MEET처럼 지나치게 추상적인 판단기준을 요구하기보다 지문의 내용에 객관적으로 대응되는 선지들로 구성했습니다. 이 문항은 '비판', 즉 흄의 입장을 약화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흄의 논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어떤 주장을 비판하려면(약화하려면) 어떤 오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③~⑤ 선지는 **각각의 사례가 지문의 어떤 개념에 대응**되고, **그 내용이 흄의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아마, **③~⑤의 판단에서 어려움을 겪은 학생이라면 기출의 <보기> 문제들에서도 자주 어려움을 겪거나, 재진술 등에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오 판단

① 비극을 즐기는 이들 중 다수는 비극에 몰입하거나, 그 맥락이 되는 상황에 참여함으로써 작품에 더욱 매료된다.

↳ 선지의 사례는, 비극을 즐기는 이들이 비극의 내용과 더욱 가까워지려 시도함으로써 더 큰 쾌락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비극과의 충분한 거리감'을 통해 쾌락을 얻는다는 흄의 주장과 상반되므로, 흄을 약화한다.

② 비극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그 작품의 다른 뛰어난 측면에서 즐거움을 얻는 경우가 많다.

↳ 흄의 주장과 양립 가능한 선지이다. 비극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은 싫어하면서도, '비극이 가진 높은 형식적 완성도'가 주는 쾌락이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압도함으로써 비극을 향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③ 베레스가 시칠리아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없었더라면, 키케로의 연설은 대중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을 것이다.

↳ 흄은 키케로의 연설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높은 형식적 완성도'를 제시한다. 그러나 선지는 키케로의 연설이 사랑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내용'을 제시하며, 선지가 옳다면 흄이 제시한 '높은 형식적 완성도'는 키케로의 연설이 사랑받은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선지는 흄을 약화한다.

④ 우리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삼류 신파극을 보면서 분노와 슬픔만을 느끼지만, 형식적으로 뛰어난 고전 비극보다 삼류 신파극을 더 자주 향유한다.

↳ '삼류 신파극'이 분노와 슬픔만을 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왜 그런 작품을 보는가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삼류 신파극'과 '형식적으로 뛰어난 고전 비극'은 둘 다 부정적 감정을 야기하지만, 형식적 완성도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흄의 '핵심 논거'는 형식적 완성도가 사람들이 비극을 향유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인데, 그에 따르면 우리가 삼류 신파극보다는 형식적으로 뛰어난 고전 비극을 더 향유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선지의 사례는 이러한 핵심 논거를 약화한다.

⑤ 예수의 고난을 겪은 영화나 독립운동가의 고초를 다룬 다큐멘터리와 같은 몇몇 훌륭한 비극은 사람들에게 쾌락이나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 흄은 사람들이 비극을 향유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비극의 허구성이 주는 즐거움이나 비극의 형식적 완성도가 주는 즐거움을 제시한다. 그러나 선지의 사례들은 즐거움, 또는 쾌락만으로는 작품이 향유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지의 사례는 흄을 약화한다.

30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Comment **#<보기> 대응 #사례 적용 #재진술**

2024학년도 언어이해 18번, 2021학년도 언어이해 6번을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위 문항들과 본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보기>에 나타난 각 요소를 지문의 개념에 적절히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응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보니, 정오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명백히 틀린 것'을 골라내는 태도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의 "야만"이 지문의 '역겨움'의 표현이라는 것, 그 역겨움의 대상이 처음에는 '철이 엄마'로부터 동네 사람들을 향했다가, 이후 '나'의 부인으로부터 역겨움의 대상이 '철이 엄마'가 된다는 점을 파악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허용하고, 명백히 틀린 ⑤를 골랐어야 합니다.

정오 판단

① 누스바움은 '분뇨'가 인체의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역겨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 '분뇨'는 '인체의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통과함으로써, '인간 자신이 유한한 동물적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누스바움의 입장에서 '분뇨'는 인체의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위협함으로써 역겨움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

② 누스바움은 철이 엄마가 이웃의 집을 '야만적인 구식 뒷간'이라고 칭하는 순간에 대해, 역겨움의 기준이 되는 경계가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철이 엄마'가 다른 이웃들을 '야만적인 구식 뒷간'이라고 칭하기 전까지, 구식 변소는 역겨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한 발화로 인해 기존 이웃들의 변소는 금세 역겨움의 대상이 된다. 누스바움의 입장에서 이는 '철이 엄마'가 변소의 현대화 여부를 '인간과 동물이라는 경계'로 설정함으로써 역겨움의 기준이 되는 경계를 새롭게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철이 엄마'가 말한 '야만적'에는 '동물적'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③ [A]는 '야만'의 대상이 전환된다는 점을 들어 소설이 독자의 도덕적 성찰을 촉발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소설 안에서 야만의 대상은 '구식 뒷간'이 되었다가, 다시 '철이 엄마'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역겨움의 대상도 시시각각 변화한다. [A]는 이러한 서술을 통해 독자가 역겨움의 대상이 고정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역겨움의 대상을 검토하며 인간성과 도덕적 경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④ [A]는 '나'의 부인이 철이 엄마를 '야만적'이라고 칭하는 것을 들어 윤리적인 역겨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 '나'의 부인은 강아지를 구타하는 '철이 엄마'를 '야만적'이라고 평가한다. [A]는 이를 '부도덕한 사람'인 철이 엄마의 동물 학대 행위, 즉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나'의 부인이 역겨움을 느끼는 것으로, 사회가 도덕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윤리적 역겨움의 사례라고 말할 것이다.

⑤ [A]는 소설의 결말에서 '개 비명소리'의 결과로 나타난 '시원한 쾌변'을 통해 '나'와 독자의 역겨움이 해소된다고 볼 것이다.

↳ [A]는 '수용자는 작품 내부에서 역겨움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역겨움을 느끼지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나'가 느꼈던 '철이네'에 대한 역겨움은 '개 비명소리'를 통해 해소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강아지가 구타당하는 것을 즐기며 '시원한 쾌변'을 누는 '나'에 대해서 독자는 다시금 역겨움을 느낄 수 있다. '나'의 인간성 역시 역겨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학년도 시대인재 LEET 서바이벌 제로

추리논증 영역 정답표

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1	①	11	④	21	④	31	④
2	③	12	⑤	22	①	32	①
3	①	13	④	23	②	33	④
4	②	14	①	24	③	34	③
5	③	15	③	25	①	35	③
6	③	16	③	26	③	36	④
7	⑤	17	②	27	②	37	③
8	①	18	⑤	28	①	38	⑤
9	③	19	⑤	29	⑤	39	④
10	③	20	③	30	④	40	④

2026학년도 시대인재 LEET 서바이벌 제로

추리논증

1 헌법 기본권 + 보안관찰법

정답	①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규범(법)					
문항 유형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강화약화					
유사 기출	25추리 1번, 21추리 1번					

Comment **#강화약화 #입장파악 #논지파악**

특정 제도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각 견해의 강화약화 여부를 묻는 문항입니다. 각 견해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기> ㄴ과 관련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거나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특정 제도의 필요성은 약화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ㄷ의 경우 지문에서 문제되고 있는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이므로, 이 둘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오 판단

ㄱ. 보안관찰 대상자 지위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결정'에 의해 벗어날 수 있지만 실무상 위 면제결정이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갑의 견해를 약화한다. (×)

↳ 신고의무의 계속적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마저 실무상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갑의 견해와 양립 가능하다. 따라서 갑의 견해는 약화되지 않는다.

ㄴ. 입법 당시에 비해 행정의 일원화와 전자행정의 발달로 인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보안관찰 대상자의 주거와 동선 등에 관한 정보 파악과 수집이 용이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을의 견해를 약화한다. (○)

↳ 입법 당시에 비해 보안관찰 대상자의 주거와 동선 등에 대한 정보 파악과 수집이 훨씬 용이해졌다는 것은, 굳이 대상자가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변동신고제로 달성되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동신고제가 필수적이라는 을의 견해는 약화된다.

ㄷ. 보안처분 대상자가 교도소 출소 후 7일 내 출소사실을 1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X국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다면, 갑의 견해는 약화되고 을의 견해는 강화된다. (×)

↳ 선지에서 제시된 출소 후 신고 규정은 출소사실만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므로 그 의무가 1회적인 반면, 변동신고제는 의무의 상한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 따라서 갑의 견해가 약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학원법 개정안

정답	③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규범(법)					
문항 유형	강화약화					
유사 기출	25추리 2번					

Comment **#강화약화 #입장 파악 #논지 파악 #규정 해석**

[규정]과 <견해>가 비교적 짧게 제시되어 있고, 제시문과 <보기>가 꼬내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은 최대한 실수를 줄이면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오 판단

ㄱ. 현행과 개정안 중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과외 교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습 과정과 교습비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현행에 따르는 경우 "과외를 통한 교습은 교사의 인적 사항, 교습 과정, 교습비를 교육감에게 신고한 다음 실시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에도 "과외를 통한 교습은 교사의 인적 사항, 교습 과정, 교습비를 교육감에게 신고한 다음" 실시할 수 있다.

ㄴ. 삼림 관리에 관한 교습은 그 특성상 한밤중과 새벽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은 강화된다. (○)

↳ 모든 국민은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도 갖는다. 삼림 관리에 관한 교습은 그 특성상 한밤중과 새벽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개정안에 따를 때 삼림 관리에 관한 교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능한 시간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개정안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강화한다.

ㄷ. 교육감이 심야 과외 교습에 대해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심야 과외 교습이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은 강화된다. (×)

↳ 학원과 과외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개정안이 '과외 강사에게만'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그 외 시간에 교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감이 심야 과외 교습에 대해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심야 과외 교습이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학원과 과외 모두 심야 교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둘 사이에 다른 것이 없다. 차별을 주장하려면 실제로 한쪽은 가능하고 다른 한쪽은 불가능해야 하는데, 이 경우 모두 불가능해져 차별 요소가 약화된다. 따라서 ㉡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있어도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토양오염과 정화책임자

정답	①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규범(법)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5추리 12번, 24추리 7번					

Comment **#규정 해석 #사례 적용 #요건 #논리적 판단**

[규정]을 <보기>에 제시된 사례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보기>의 내용이 제2조 제2항과 제3조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해당 부분만을 바탕으로 문항에 접근한 경우, ㄴ에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정]이 제시되는 경우, 보통 [규정]에서 의미 없이 제시된 조항은 없으므로, [규정]의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보기>의 판단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오 판단

ㄱ. 토양환경관리청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매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을 알지 못한 토양의 소유자 A씨에게 토양정화의 실시를 명할 수 없다. (○)

↳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매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현재 토양의 소유자는 정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토양환경관리청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양에 대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와 토양정화의 실시를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정화책임자가 아닌 (토양오염 사실을 알지 못한) 현재 토양의 소유자에게는 토양정화의 실시를 명할 수 없다.

ㄴ. 지진에 의해 석유 저장 시설이 파괴되어 토양이 훼손된 경우, 토양환경관리청은 석유 저장 시설의 소유자에게 토양정화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 [규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토양오염'이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진에 의해 석유 저장 시설이 파괴되어 토양이 훼손된 경우, 이는 토양오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상으로는 '토양오염'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토양정화 명령의 전제인 토양오염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정화책임자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토양환경관리청은 석유 저장 시설의 소유자에게 토양정화의 실시를 명할 수 없다.

ㄷ.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시설의 소유자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관리청은 토양오염 발생 당시 토양의 소유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토양환경관리청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양에 대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고,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시설의 소유자가, 시설의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 토양의 소유자가 정화책임자가 된다. [규정]상 최후의 정화책임자는 '현재 토양의 소유자'이고, 따라서 토양환경관리청은 토양오염 발생 당시 토양의 소유자가 아닌 현재 토양의 소유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4 주거침입죄

정답	②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규범(법)					
문항 유형	강화약화,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유사 기출	24추리 6번, 23추리 1번					

Comment **#강화약화 #요건 #논쟁 분석 #말장난**

추상적인 법리를 다루고 있는 두 견해의 강화/약화를 묻는 문항으로, 각 견해가 제시하는 법리의 요건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 ㄷ의 판결은 일견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B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난 의사'와 '추정적 의사'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ㄱ의 경우, P와 Q를 헷갈려 틀리기 쉽다는 점에서 선지에 대한 수험생분들의 호감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제 LEET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답이므로 미리 경험해보시기를 의도했습니다.

정오 판단

ㄱ. P가 평소 자신의 아파트에서 Q가 혼외 성관계를 하는 상황은 상상도 하기 싫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면, B와 달리 A는 ㉠이 Q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볼 것이다. (×)

↳ 건물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거주자 중 일부의 가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사람'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추정적 의사란 건물에 들어가는 방식이나 들어간 행위를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거주자의 추정되는 의사를 말한다. P가 평소 자신의 아파트에서 Q가 혼외 성관계를 하는 상황은 상상도 하기 싫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면 P가 ㉠을 용인하지 않을 의사가 명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B와 달리 A는 ㉠이 (Q가 아닌) P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볼 것이다.

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규정]의 입법 취지여서 거주자의 추정적인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는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X국 법원이 판결하였다면, A는 강화된다. (○)

↳ A에 따르면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추정적 의사란 건물에 들어가는 방식이나 들어간 행위를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추정되는 의사를 말한다. 거주자의 추정적인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는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거주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쳤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인 A는 강화된다.

ㄷ.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즉각적으로 인지한 거주자가 명시적으로 건물 진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한다고 X국 법원이 판결하였다면, B는 약화된다. (×)

↳ B에 따르면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는지 여부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자의 '행위'의 성질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거주자의 명시적 의사를 무시한 행위가 '침입'에 해당한다고 X국 법원이 판결하였다고 해도, 이는 '추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B가 약화되지는 않는다.

5 행정법+국가배상법

정답	③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규범(법)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5추리 6번					

Comment **#차이 파악 #사례 적용**

제시문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안>, <2안>, <3안>을 비교하면 그 차이점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명사로 구성된 조문을 <보기>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보기> ㄷ과 같이 가볍게 읽고 넘어가기 쉬운 앞부분에 정오를 가르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기>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정오 판단

ㄱ.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수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안>에 따르든 <2안>에 따르든 수용자는 국가로부터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 경찰관의 신체 수색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하는 작용에 해당하고, 행정작용에도 해당한다. 또한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경찰관에게 고의(적어도 과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안〉에 따르든 〈2안〉에 따르든 수용자는 국가로부터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 집행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한 수험생도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지문에 근거할 때 '신체 수색을 하는 과정'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으로 대응하여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또한 문제되는 'X국의 법' 자체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상황을 규율하므로,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일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무 집행일 수 있음을 인지하여 각 입법안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만 한다.

ㄴ. P광역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P광역시가 사기업인 Q사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법률이 규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Q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안>과 달리 <2안>에 따르면 Q사는 국가로부터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 P와 Q가 체결한 계약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계약이고 경제적인 계약이므로 국가가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하는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2안〉에 따르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3안〉에 따르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ㄷ. 공무원이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안>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만 <1안>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

↳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3안〉에 따르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대표이사의 책임

정답	③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규범(법)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5추리 3번					

Comment **#추론 #요건 #사례 적용**

사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가 어떤 조건에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인 '주주의 동의'가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ㄷ 선지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오 판단

ㄱ. 갑이 세계적인 경제 호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자신의 직관만을 근거로 ㉠을 추진했다면, 주주 전원이 면책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X국 정부는 갑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다. (○)

↳ 책임 여부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조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조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별다른 정보 조사 없이 자신의 직관만을 근거로 ㉠을 추진했다면, 주주 전원이 면책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X국 정부는 갑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다.

ㄴ. 갑이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X국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에 대한 갑의 판단이 수출 대상국의 경기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X국 정부는 갑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다. (○)

↳ X국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판단 기준이나 주주 전원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대표이사에게 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따라서 갑이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X국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X국 정부는 갑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다.

ㄷ. 갑이 ㉠을 추진하기 전에 ㉠을 시작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었고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X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X국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

↳ 주주 전원이 손해에 대한 대표이사의 면책에 동의한 경우 대표이사의 책임은 완전히 면제되나, 단순히 주주 전원이 '사업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도 책임이 완전히 면제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갑이 ㉠을 추진하기 전에 ㉠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었고 X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의 판단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고 주주 전원이 '책임 면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면 X국 정부는 갑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것이다.

7 수익권과 신탁계약

정답	⑤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규범(법)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5추리 7번					

Comment **#원칙과 예외 #요건 #사례 적용 #개념 파악**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여 사고할 것을 요구한 2025학년 7번 문제에 착안하여 만든 문항입니다. 해당 기출 문항은 특히 '사용권'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음에도 그 개념이 소유권과 구별되는 것이고 권리 관계 역시 구별된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문항에 사용된 수익권의 개념 및 신탁계약은 현행 '신탁법'이 뿌리를 두고 있는 과거 영국에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권리 귀속이 문제되던 상황을 변형해 만든 것인데, 실정법의 소유권 및 수익권의 개념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에 배경지식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제시문을 그대로 독해하여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오 판단

① 무가 별장의 수익권이 을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무는 별장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무가 별장을 살 당시 갑은 아직 전쟁 중에 사망하기 전이므로, 별장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선지에 가정된 것처럼 수익권이 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정이 소유자가 아닌 비소유자임을 아는 것'은 별개다. 수익권이 을에게 있다고 해서 정이 비소유자임을 반드시 인식할 이유는 없고, 수익권 분리가 가능하므로 수익권자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 소유권자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제시문에 따라 소유자가 아닌 정으로부터 별장을 취득한 무는 원칙적으로 별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정이 별장의 소유자가 아님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예외적으로 별장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무가 별다른 과실 없이 소의 소유권이 정에게 있다고 믿었다면, 무는 소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①과 마찬가지로 소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이 전쟁에 차출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별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 (○)

↳ 신탁계약에서 별장의 수익권은 을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갑이 전쟁 중 사망하기 전까지 별장의 수익권자는 을이며, 수익권자인 을은 별장을 사용할 수 있다. 선지의 시점은 갑이 아직 사망하기 전이므로, 옳다.

④ 병은 갑의 사망 이전에 별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

↳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장 수익권은 을에게 있고, 수익권을 가진 자만이 별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병은 전쟁 중 별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⑤ 을은 갑의 사망 이후에도 소를 사용할 수 있다. (×)

↳ 비록 을이 갑으로부터 소의 수익권을 양도받았으나, 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탁계약이 없었기에 갑의 사망 이후 무가 소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을의 수익권은 소멸된다. 즉, 갑의 사망 시 신탁 없이 사망한 군인의 재산은 영주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기존 수익권이 있는 자의 권리는 소멸하므로, 을은 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8 회사법: 모회사-자회사 및 합병

정답	①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규범(법)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4추리 4번, 22추리 14번					

Comment **#규정 해석 #사례 적용 #계산**

문항 제작에 참고가 된 2024학년도 4번 문제는 전형적인 규정 해석 문제로, 결국 제조와 제2조의 내용을 '잘 읽고' 푸는 게 전부인 단순한 문제입니다(숫자를 대입하여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 약간의 계산을 포함하는 복잡한 구조의 규정을 제시하여 규정 해석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으레 그렇듯, 규정의 해석 내지는 계산이 다소 복잡함을 고려하여, 이해만 잘 하면 선지 자체는 (약간만 헷갈리면서) 평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정오 판단

ㄱ. 합병 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이 아닌 한, C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 C 회사(제1조 제3항의 '다른 회사')의 주식의 100분의 20을 A 회사([규정]상 '모회사'), 100분의 40을 B 회사([규정]상 '자회사')가 소유해, A 회사 및 B 회사([규정]상 '모회사 및 자회사')가 총 100분의 60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A 회사는 C 회사의 모회사이다. 따라서, [규정] 제1조 제1항에 따라, C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ㄴ. C회사가 D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위해서, D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C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

↳ C 회사가 D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데 있어, C 회사는 D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규정 제2조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바, 소멸하는 회사(즉 "D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D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억 원으로, C 회사의 시가총액인 1,000억 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정 제2조 제3항의 조건 역시 충족되는바, 존속하는 회사(즉 "C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또한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ㄷ. C회사는 D회사를 흡수합병한 이후, D회사가 보유하던 B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

↳ ㄱ에서 살펴보았듯이 A 회사는 C 회사의 모회사이지만, C 회사의 주식의 100분의 40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B 회사는 C의 모회사가 아니다. 즉 합병의 결과 C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이를 ([규정] 제1조 제2항에 따라) 처분할 필요가 없다.

9 재개발·재건축

정답	③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규범(법)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4추리 4번					

Comment **#규정 해석 #사례 적용 #계산**

규정의 내용은 평이하지만, 사례가 다소 낯선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서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보기>의 판단에 있어 [사례]의 어떤 숫자와 어떤 규정이 필요한지를 빠르게 판단하여, 침착하게 계산을 수행한다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항입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시간적 압박을 고려한다면, 문항 자체의 절대적인 난이도에 비해 체감 난이도는 더 어렵게 느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오 판단

ㄱ. A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를 구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129명이다. (○)

↳ 제2조에 따라, 주택단지 내 인원과 주택단지 외 인원을 완전히 별개로 해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주택단지 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의 최소 인원은 제1조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데, (i) 단지별 동의율(과반)과 (ii) 주택단지 전체의 동의율(4분의 3 이상)를 만족하기 위한 인원은 120명이다.
주택단지 외 최소 인원은 제2조에 따라 계산하면 되고, (i) 인원 요건과 (ii) 면적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인원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동일하므로, 둘 중 수치가 더 높은 (i)만 고려하면 된다. 12명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인원은 9명이다. 주택단지 내 인원(120명)과 합산하면 129명이 된다.

ㄴ. 만약 <사례>가 A 재건축사업 구역 중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소유자 중 6명은 각 50m2씩 소유하나 나머지 6명은 각 500m2씩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A 재건축구역의 주택 및 토지 소유자 중 170명이 동의하더라도 조합을 설립하지 못할 수 있다. (×)

↳ 이 경우 토지 면적은 총 3300㎡이므로 2200㎡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50㎡을 소유한 소유자들이 6명 동의하고 500㎡을 소유한 소유자들이 4명 동의하여 10명이 동의하는 경우에 동의한 소유자의 면적이 가장 적어지지만, 그 경우에도 2300㎡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였으므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ㄷ. B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조합이 설립되었고 그 사업 내용의 변경을 위한 총회 의결까지 성공하였을 때, 총회에서 찬성하였을 조합원의 최소 인원은 10명이다. (○)

↳ 먼저 제1조에 따라, B 구역에서 각 동별 인원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전체 단지의 4분의 3 이상의 인원을 채우는 것만 고려하면 된다. 전체 인원은 20명, 조합설립을 위한 최소 인원은 15명이다. 제3조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한 15명만이 조합원이 되고, 제4조에 따라, 사업 내용 변경을 위한 총회 내 찬성의 최소 인원은 그 2/3인 10명이 된다.

10 불법촬영과 협박

정답	③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규범(법)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4추리 2번, 22추리 10번					

Comment **#사례 적용 #강화약화 #논지 파악 #개념 파악**

<견해>를 바탕으로 ㉠~㉤ 각각의 사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견해>를 출제함에 있어 추론의 여지 없이 최대한 깔끔하게 독해될 수 있는 구조를 의도하였으나, 어떤 법적인 개념에 대한 견해를 사례에 빠르게 적용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면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정오 판단

ㄱ. 법원이 ㉠과 ㉡ 중 하나에 대해 제1조를 적용하여 A와 C를 처벌하였다면 <견해>는 약화된다. (○)

↳ 〈견해〉는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촬영 시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견해〉는 ㉠에 대해서는 제1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또한 〈견해〉에 따르면 제1조의 '다른 사람의 신체'는 영상이나 사진이 아닌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에 한정된다. 이에 따르면 B의 나체를 촬영한 것은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나, C가 A가 촬영한 사진을 촬영한 것은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에 대해서 역시 제1조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둘 중 하나라도 처벌하였다면 이는 〈견해〉와 법원의 의견이 대립하는 것으로 〈견해〉는 약화된다.

ㄴ. B는 사실 A의 나체 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는 경우, <견해>에 따르면 ㉢과 달리 ㉣에 대해서는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에 유포 혹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 〈견해〉에 따르면 '이용하여'란 현재 존재하는 촬영물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의 경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기에 제1조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이므로, 〈견해〉에 따르면 제2조가 적용되어 처벌될 것이다. 그러나 ㉣의 경우 존재하지 않았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제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할 것이다.

ㄷ. 법원이 ㉤에 대해 C를 처벌하였다면 <견해>는 강화된다. (×)

↳ ㉤의 경우 현재 존재하지 않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으므로, 〈견해〉에 따르면 처벌되지 않는다. 만약 법원이 이를 처벌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견해〉는 약화된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답	④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규범(법)					
문항 유형	강화약화					
유사 기출	25추리 10번					

Comment **#요건 #사례 적용 #논쟁 분석 #강화약화**

2025학년도 10번 문제와 같이 규정을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해당 기출에서는 해석론 등을 고려하여 그 규정의 위반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떠한 판단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아울러 살폈습니다. 더불어 간단한 계산 능력도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출제 의도 가운데 계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각하여 출제했습니다.

정오 판단

ㄱ. 국내 법원이 X회사와 Y회사는 '경쟁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X회사의 제공이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A는 강화된다. (×)

↳ A와 B는 '부당성'에 관한 견해대립인 반면, 국내 법원은 Y회사는 제0조 제1항에 따른 X회사 '경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견해대립과 무관하다. 또한 A는 X회사의 제공이 '부당한 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A를 약화하지도 강화하지도 않는다.

ㄴ.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X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Y회사보다 낮다는 사실은 A를 약화하지 않는다. (○)

↳ A에 따르더라도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결합 상품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X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Y회사보다 낮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A는 '부당한 강제'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할 뿐, 그 기준에 따라 X회사의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이 '부당한 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에 선지는 A를 강화하지도 약화하지도 않는다.

ㄷ.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X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Y회사보다 낮다는 사실은 A를 약화하지 않는다. (○)

↳ B는 A와 달리 '부당한 강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나아가 X회사의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이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를 '사실상의 강제'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동영상 재생 플랫폼에서의 X회사의 독점적 지위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 책정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시장의 독점자로서 지위를 활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즉, 독점적 지위가 없었더라면 끼워팔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독점적 지위가 끼워팔기의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어 B의 견해를 강화한다.

12 오행과 십간

정답	⑤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규범(법)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4추리 12번					

Comment **#퍼즐 #원칙과 예외 #케이스 분류 #귀류법**

이 문항의 모델이 된 2024학년도 추리논증 12번은 간단한 규칙을 사용하지만 1) 소재가 낯설고, 2) 원칙(두 글자)과 예외(한 글자)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읽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항을 참고해서 만들되 규칙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하면 쉽게 풀리도록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정오 판단

ㄱ. 작년의 이름은 '수임년'일 수 있다. (○)

↳ 상황 1과 상황 2로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다. 이때, 상황 1의 경우 양간이 4번 반복될 수는 없으므로 4년 전에는 음간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 3년 전의 이름은 '금경년'이 되고, 규칙 3.에 따라 작년의 이름은 수임년이 된다.

ㄴ. (상황 1)이면 2년 뒤의 이름이 '금신년'일 수 없다. (○)

↳ 상황 1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는 반드시 음간이 선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칙]에 의해 2년 뒤의 수호주는 토주이므로 이름이 '금신년'일 수 없다.

ㄷ. (상황 2)이면 내년이 화정년일 수 없다. (○)

↳ 상황 2의 경우, 3년 전에는 음간, 재작년에는 양간이었으므로 작년은 금경년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올해의 수호주는 수주이고, 수주가 양간을 고르면 내년은 목주가 수호하는 목을년, 수주가 음간을 고르면 내년은 화주가 수호하는 화병년이 된다. 따라서 내년이 화정년일 수는 없다.

13 항소심에 대한 세 입장

정답	④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규범(법)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2추리 12번					

Comment **#논쟁 분석 #차이 파악**

제시문에 난해해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눈에 익혀둔 다음 <보기>로 넘어가면 각 선지들이 제시문과 일대일로 대응된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정오 판단

ㄱ. 갑의 견해에 비해 병의 견해에 따르는 경우 항소심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좁다. (×)

↳ 갑의 견해에 따르면 항소심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심판할 수 있지만, 병의 견해에 따르면 항소심은 모든 사항을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의 견해에 비해 병의 견해에 따르는 경우 항소심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을 것이다.

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심은 갑의 견해에 따르면 1심 판결을 파기하지만 을의 견해에 따르면 스스로 판결한다. (○)

↳ 갑의 견해에 따르면 1심 판결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1심 판결을 파기하여 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만, 을의 견해에 따르면 1심 판결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항소심이 스스로 재판하고 스스로 판결한다. 따라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심은 갑의 견해에 따르면 1심 판결을 파기하지만 을의 견해에 따르면 스스로 판결한다.

ㄷ. 자신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을의 견해에 따르든 병의 견해에 따르든 1심 법원이 객관적인 진실을 오해하여 유죄로 잘못 판결하였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

↳ 을의 견해에 따르든 병의 견해에 따르든 항소심은 항소 이유에 무관하게 모든 사항을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누구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항소 이유인 '법령을 잘못 해석'에 국한되지 않고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역시 심리한 다음, 1심 법원이 객관적인 진실을 오해하여 유죄로 잘못 판결하였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14 미학에서 작가의 요건과 조수 사용의 법률적 쟁점

정답	①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미학, 법학					
문항 유형	강화약화					
유사 기출	25추리 25번, 24추리 21번					

Comment **#입장 파악 #강화약화 #요건**

이 문항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갑, 을, 병 각각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ㄱ, ㄴ, ㄷ에서 제시되는 각각의 가정이 각 입장의 설득력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에서의 핵심은, A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 A는 작품 창작에 있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역할만을 수행했다는 점, 물리적인 과정은 전부 B가 실행했다는 점, 그리고 작품의 구매자들은 B의 수행 여부를 몰랐다는 점입니다.

해 설

갑은 전통적인 관점으로, 물리적인 노력을 투입하고, 창작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작가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직관과 가장 가까운 입장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 없이도 작가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다면 갑의 입장은 약화될 것입니다.

을은 작가의 의도를 작품의 핵심 요소로 보는 관점으로, A가 제시한 콘셉트나 '아이디어'가 곧 작가의 요건이며, 그러한 아이디어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하여 작품을 물리적으로 완성했는가는 중요한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병은 법률적 관점으로, A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봅니다. 이는 1) 해당 작품의 구매자들은 A의 노동이 투입된 작품을 구매하고자 의도했다는 것, 2) 해당 작품의 구매자들은 B가 작품 제작의 물리적 과정을 담당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 3) 해당 작품의 구매자들이 B의 존재와 역할을 알았다면 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세 가지 전제를 사용합니다. 이 세 전제 중 하나 이상을 부정하는 사례가 나온다면 병의 입장은 약화됩니다.

정오 판단

ㄱ. 현대 회화의 거장으로 인정받는 이들 중 다수가 작품의 주제를 정한 뒤 조수에게 데생과 채색을 지시한다면, 갑의 입장은 약화되나 병의 입장은 약화되지 않는다. (○)

↳ 작가들 다수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실제 물리적인 작업은 조수가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작품들이 유명 작가의 걸작으로 인정받는다면, '섬세한 붓질과 자료 해석'이 회화 작품과 작가 인정의 핵심 요소라는 갑의 입장은 약화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작품의 구매자들이 A가 물리적 노력을 투입하여 작품을 구매할 것으로 믿었으며,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 작품을 구매한 것이라는 병의 주장은 강화되지도 약화되지도 않는다.

ㄴ. 작품이 갖는 주제나 의미는 작품을 기획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면, 갑의 입장은 강화되나 을의 입장은 약화되지 않는다. (×)

↳ '기획하는 단계'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작업을 지시'하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은 '데생부터 채색에 이르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한다. 지문에서 전자는 A가, 후자는 B가 수행하였는데, ㄴ의 가정은 A가 아닌 B의 역할이 작품의 본질을 형성하는 과정임을 함축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갑은 강화되고 을은 약화된다.

ㄷ. 미술 작품의 거래에는 작가의 인지도, 작품의 독창성과 창의성, 완성도나 가격 등의 요소가 고려되며, 개별 구매자들이 각 요소를 얼마나 고려했는가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병의 입장을 강화한다. (×)

↳ ㄷ의 '사실'은 작품 구매 당시의 고려 요인은 작가의 인지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실제 구매자가 어떤 요인에 중점을 두어 작품을 구매했는지는 알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해당 작품의 구매자들은 연예인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A가 자신의 노력을 투입하여 직접 그린 작품을 사고 싶었던 것"이라 말하는 병의 주장을 최소한 강화하지는 않는다. 선지는 병의 주장의 진위가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15 인과에 대한 과정 이론과 반사실 이론

정답	③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철학)					
문항 유형	논쟁 및 반론					
유사 기출	25추리 15번, 24추리 13번, 23추리 35번					

Comment **#입장 파악 #사례 적용**

'인과'에 대한 철학적 분석은 22학년도 37번, 21학년도 33번, 17학년도 16번, 17학년도 32번 등 여러 기출에서 소재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은 위에 열거한 기출과 겹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A, B, C의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각 입장을 사례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ㄴ 선지의 경우, "'않음'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과 같은 이중 부정의 구조로 인해 헷갈렸을 수 있는 선지입니다. 이런 표현은 추리논증 뿐 아니라 언어이해에도 자주 출제되는 논리 구조이므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ㄴ과 ㄷ은 모두 '부재 인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부재 인과'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 어떤 인과의 원인 혹은 결과가 될 수 있느냐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ㄷ은 세 선지 중 가장 쉬운 선지이지만, ㄴ을 잘못 판단한다면 ㄷ도 덩달아 잘못 판단하게끔 출제하였습니다.

이하의 해설은 다소 과할 수 있으나, 예상 난이도를 고려하여 타 문항보다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정오 판단

ㄱ. 갑의 '첫 번째 실험'에 대해 A가 "R시약을 투입하는 단계가 X반응을 야기했다"라고 평가한다면, A는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사건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

↳ A는 '사건 c가 사건 e를 야기한다'가 참이라면, c와 유사한 모든 사건에는 e와 유사한 사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A가 갑의 첫 번째 실험에 대해 'c: R 시약을 투입하는 단계'가 'e: X 반응'을 야기했다고 평가한다면, A의 세 번째 조건에 따라 'c:R 시약을 투입하는 단계'와 유사한 모든 사건에는 X반응과 유사한 사건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실험에서는 X반응과 유사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A의 입장을 견지하려면 두 번째 실험의 'R시약을 투입하는 단계'는 첫 번째 실험의 'R시약을 투입하는 단계'와 유사하지 않은 사건이어야만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c1이 e를 야기 → c1과 유사한 사건에는 e와 유사한 사건이 뒤따름

ⅱ) c1과 c2가 유사하다면, c2가 일어날 때 e와 유사한 사건이 뒤따름

ⅲ) c2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e와 유사한 사건이 뒤따르지 않았음

∴ c1과 c2는 유사하지 않음

요컨대, 첫 번째 실험의 'R시약을 투입하는 단계'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R시약 투입'이라는 유형의 사건이며, 두 번째 실험의 'R시약을 투입하는 단계'는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조건에서 R시약 투입'이라는 유형의 사건이라고 A는 주장할 것이다.

ㄴ. <사례1>의 결과에 대해, A, B, C 중 누구에 따르더라도 "'첫 번째 실험'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은 것이 X반응의 원인이다"라는 명제는 참일 수 없다. (×)

↳ C의 주장에 선지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 (1)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음'이 일어났더라면, X 반응이 일어났을 것이다"와 (2)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음'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X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가 동시에 참일 때, (3)X반응은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음'에 의존한다.

이때 (1)은 참일 수도, 참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C가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의 차이는 기온의 급격한 변화뿐이라고 판단한다면, C는 (1)이 참이라고 볼 것이다. (2)는 '두 번째 실험'의 결과를 고려할 때 참으로 볼 수 있다. 만약 (1), (2) 모두 참이라면, C는 (3) 역시 참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3)은 결국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음'은 'X 반응'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므로, 'A, B, C 중 누구에 따르더라도 참일 수 없다'라는 선지는 틀렸음을 알 수 있다. C에 따르면 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여담으로, 출제 의도는 C의 주장을 통해 ㄴ 선지가 틀렸음을 밝혀내라는 것이었으나, 사실 A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첫 번째 실험'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은 것이 X반응의 원인이다"는 참일 수 있다.

ㄱ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며 추론해 낸 수험생도 있겠지만, A는 'c가 e를 야기한다'를 '통상적 조건이 주어졌을 때 c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e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다'와 같은 식으로 인식한다. 이것이 곧 A가 말하는 '규칙성'의 의미이자 세 번째 조건의 함의이다. 즉, 'c와 유사한 모든 사건에는 e와 유사한 사건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조건에서의 '유사성'은 이러한 '통상적 조건'이 포함된 개념이다.

따라서 A의 입장은 '시약이 투입될 것', '정상적인 온도에 있을 것', 'M물질이 훼손되어 있지 않을 것', '실험 중간에 누군가 방해하지 않을 것' 등등, 무한한 조건이 원인에 포함될 수 있다. A는 흄과 밀의 주장을 응용한 것이며, 통상적 조건의 무한한 요소들을 원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흄과 밀의 인과 이론에 대해 제기되는 주요한 비판 논거이다.

ㄷ. "을이 돌을 던지지 않은 것이 창문이 깨지지 않은 것을 야기했다"라는 명제에 대해 B는 동의하지 않지만 C는 동의한다. (○)

↳ ㄴ에서와 마찬가지로, C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 (1) "'돌을 던지지 않음'이 일어났더라면, '창문이 깨지지 않음'이 일어났을 것이다"와 (2) "'돌을 던지지 않음'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창문이 깨지지 않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가 동시에 참일 때, (3) '창문이 깨지지 않음'은 '돌을 던지지 않음'에 의존한다.

이때 (1), (2)가 참이므로, C의 입장에서는 "을이 돌을 던지지 않은 것이 창문이 깨지지 않은 것을 야기했다"라는 명제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B는 '돌을 던지지 않음'과 '창문이 깨지지 않음'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물리적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돌이 날아가는 궤적과 같은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돌을 던지지 않은 것과 창문이 깨지지 않은 것 사이에 그런 물리적 과정이 존재할 수는 없다. 따라서 B는 "을이 돌을 던지지 않은 것이 창문이 깨지지 않은 것을 야기했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6 댓글 삭제 AI에 대한 정치적 신뢰도 측정

정답	③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사회, 인문(심리)					
문항 유형	논증 평가 및 문제 해결					
유사 기출	25추리 28번, 24추리 27번, 21추리 25번					

Comment **#실험 설계 #가설 검증**

문항의 형식이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지문에서 선지로 이어지는 논리 구조 자체는 기출에서 출제되었던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실험 설계에 대한 판단 기준, 가설 검증에 대한 개념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오 판단

ㄱ. 집단 1보다 집단 2에서 AI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았다는 실험 결과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

↳ 세 번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AI 조정자라는 공통점을 유지한 채, 실제 이유-형식적 이유에서만 차이를 둔 실험이 있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는 조합은 집단 1 + 집단 2 뿐이다. 따라서 집단 2에서 AI 신뢰도가 집단 1보다 낮다는 결과만이 세 번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선지로 판단할 수 있다.

ㄴ. 집단 6보다 집단 3에서 정치적 의심의 정도가 더 높았다는 실험 결과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

↳ 선지에서 언급하는 집단 3 + 집단 6은 설명 부분에서 '삭제된 이유 제공하지 않음'으로 변수가 동일하므로 집단 3이 집단 6보다 정치적 의심이 크다면 이는 오히려 사람 조정자에 대한 정치적 의심이 덜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는 첫 번째 결론과 모순되므로 실험 결과에 포함될 수 없다.

ㄷ. 집단 6보다 집단 3에서 정치적 의심의 정도가 더 높았다는 실험 결과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

↳ 두 번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AI 조정자와 사람 조정자의 경우 각각에서 삭제된 이유가 제공된 경우, 이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용자의 정치적 의심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필요하다. 집단 1이나 집단 2에 비해 집단 3에서 정치적 의심의 정도가 더 높았다는 실험 결과와, 집단 4나 집단 5에 비해 집단 6에서 정치적 의심의 정도가 더 높았다는 실험 결과가 모두 필요한 것이다.

17 성격 이론의 비교

정답	②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심리)					
문항 유형	논쟁 및 반론					
유사 기출	23추리 25번, 21추리 24번					

Comment **#개념 파악 #입장 파악**

A, B, C는 각각 인본주의 이론, 특질 이론, 정신분석 이론을 다소 수정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소재의 경우 고학년도 추리논증 24번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지문의 경우 논리적 구조가 느슨하고, 단순 나열식으로 각 이론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다만 각각의 이론이 성격의 형성에 있어 '경험'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선지를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오 판단

ㄱ. 성격은 전 생애에 걸쳐 고정적이라는 것에 대해 B와 C 모두 동의한다. (×)

↳ B는 성격이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환경적 요인은 성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여기서의 '환경적 요인'은 맥락상 '경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간이 각기 다른 고유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B는 성격이 고정적이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C는 '유아기의 경험',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성격이 형성되고, 이렇게 한 번 형성된 성격은 고정적이라고 본다. 바꿔 말하면, 유아기,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인간의 성격을 바꾸거나 새로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나 어린 시절을 겪는 동안에는 성격이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성격이 '전 생애'에 걸쳐 고정적이라는 선지의 진술은 옳지 않다.

ㄴ. 개인의 성격 형성에 있어 경험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강한 것부터 세 이론을 나열하면, A, B, C이다. (×)

↳ C 역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점에서, 이를 마지막으로 둘 수는 없다. A와 C 중 어떤 것이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성격이 경험과 무관하게 형성된다는 B만큼은 마지막으로 와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지문만 가지고 순서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마지막 순서로는 B가 자리해야 하므로 틀린 선지임을 판단할 수 있다.

ㄷ. 개인의 성격을 올바른 방식으로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은 B보다 A에 가까울 것이다. (○)

↳ B는 개인의 성격이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환경적 요인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어차피 성격은 고유하게 결정되는 것이므로 교육을 통해 성격을 바꾸거나 형성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A는 경험을 통해 성격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A는 교육과 관련된 경험이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B보다는 교육의 역할을 더 강조할 것이다.

18 지식의 폐쇄성과 회의주의

정답	⑤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철학, 인식론					
문항 유형	형식논리적 강화약화					
유사 기출	24추리 14번, 23추리 22번, 23추리 24번, 20추리 21번					

Comment **#논리적 판단 #논지 파악 #강화약화**

지문의 A와 B는 각각 노직과 무어의 주장을 변형한 것입니다. 지문에서는 '알려진 함축 하에서의 폐쇄성' 논제가 회의주의적 시나리오의 상상 가능성에 대해 갖는 관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강화약화 문항이지만 형식논리적 판단을 일부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문의 논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논리적 감각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추리논증에서 형식논리를 묻는 문항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세트에 한 문항씩은 출제되기도 하고, 이번 시험지의 모형추리 문항들에서 형식논리적 판단을 적게 요구하였음을 고려하여 이 문항에서 논리적 요소를 살짝 가미했습니다. 평소 강화약화 문항, 또는 형식논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에 취약한 학생이라면, 이 문항을 복습하며 관련 개념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첫 문장의 '지식 상태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얘기는 2023학년도 24번, 2021학년도 19번, 2021학년도 15번 등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가정이 틀렸다는 '게티어 문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제는 계속 출제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학생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오 판단

① '나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가 참이라면, ㉠은 약화된다. (×)

↳ '나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가 참이더라도, 'P임을 알고 P가 Q를 함축함을 알더라도 Q임을 모를 수 있다'가 참이라는 ㉠의 논리적 타당성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의 논리적 타당성은 '나는 내 앞에 시험지가 있음을 안다', '나는 내 앞에 시험지가 있음은 내가 통 속의 뇌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함축함을 안다', '나는 내가 통 속의 뇌가 아님을 알지 못한다' 및 인식적 폐쇄성 논제의 비정합성으로부터 따라나오기 때문이다.

② 철학자 B가 제시한 논변의 구조가 타당하다면, ㉠은 약화된다. (×)

↳ 지문에 따르면, ㉠의 논증은 B의 회의주의 반대 논변과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B의 논변의 구조가 타당하다면, ㉠의 논변의 구조 역시 타당하다.

③ S가 Q임을 알지 못할 경우 S는 P가 Q를 함축함을 믿지 않는다면, ㉠은 약화된다. (×)

↳ 'Q임을 알지 못할 경우 P가 Q를 함축함을 믿지 않는다'는 대우 규칙에 따라 'P가 Q를 함축함을 믿으면 Q임을 안다'와 동치이다. 이는 ㉠의 주장인 'P임을 알고, P가 Q를 함축함을 안다면 Q임을 안다는 것이 틀렸다'와 배치되지 않으므로, 약화한다고 볼 수 없다.

④ S가 P임을 알고 P가 Q를 함축하지 않을 때 S가 Q임을 알지 못한다면, ㉠은 강화된다. (×)

↳ A의 주장은 '알려진 함축 하에서의 폐쇄성': "S가 P임을 알고 S가 P가 Q를 함축함을 안다면, S는 Q임을 안다"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만약 'P임을 알고 P가 Q를 함축함을 알더라도 Q임을 모를 수 있다'가 참이라면 A의 입장은 강화되고, 거짓이라면 A의 입장은 약화된다. 그런데 'P가 Q를 함축하지 않는 상황은 애초에 '알려진 함축 하에서의 폐쇄성'이 아니므로, 해당 조건은 ㉠의 설득력과 무관하다.

⑤ '내 앞에 시험지가 있다'가 '나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를 함축하지 않는다면, ㉠은 약화된다. (○)

↳ ㉠의 논리적 타당성은, 내가 내 앞에 시험지가 있음을 안다는 것, 나는 내가 통 속의 뇌가 아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내 앞에 시험지가 있음이 내가 통 속의 뇌가 아님을 함축한다는 것, 그리고 인식적 폐쇄성 논제의 비정합성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내 앞에 시험지가 있음이 내가 통 속의 뇌가 아님을 함축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앞에 시험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와 '나는 내가 통 속의 뇌가 아님을 알지 못한다'는 인식적 폐쇄성 논제가 성립하더라도 양립 가능하다. 따라서 논변이 부당해지고, 즉 약화된다.

19 세대 간의 분배 정의

정답	⑤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철학)					
문항 유형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유사 기출	25추리 19번, 24추리 15번					

Comment **#입장 파악 #사례 적용 #개념 파악**

A는 철학자 파핏의 '비동일성 원리'의 귀결을 아주 간략화한 것이고, B는 공리주의의 입장을 제시한 것, C는 롤스의 입장을 변형한 것입니다(실제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3개의 윤리적 입장을 주고, 각 입장이 사례를 어떻게 판단할지 묻는 문항은 고정 출제 유형입니다. 철학 문제처럼 보여도, 특정 규범으로 사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법률 문항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문항의 핵심은 **'각 입장의 차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문항에서 나타난 각 입장의 중요한 차이는 **'이익을 고려해야 할 세대'**이고,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각 세대의 이익'**입니다. 이 점을 파악했다면 쉽게 풀었겠지만, 혹시 어려웠다면 지문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규범을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추리논증에서 고득점을 하기 어려우니, 기출 규범 문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해 설

지문에서는 '세대'가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정작 '세대'가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헷갈렸던 수험생도 있을 듯합니다. 사실 여기서의 '세대'는 현존하는 '중첩된 세대' 개념과 현존하지 않는 '먼 세대'의 개념이 혼용된 것입니다. 여기서의 '중첩된 세대'란,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세대를 말합니다. 현재의 노인 세대, 현재의 중장년 세대, 현재의 어린 세대는 모두 한 시기에 공존하는 '중첩된 세대'입니다. 반면 '먼 세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들로 구성되어, 우리와 공존하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이를 어렴풋이라도 스스로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일부러 모호하게 서술했습니다.

여기서 A는 '먼 세대'에 대한 고려 없이, '중첩된 세대'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B는 '중첩된 세대'와 '먼 세대'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C는 '먼 세대', '중첩된 세대'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되, '한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세대'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각 입장의 동의 여부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B	C
㉠	동의 ○	동의 ×	동의 ×
㉡		동의 ○	동의 ○

정오 판단

ㄱ. A를 적용하면 갑국은 ㉠을 실행할 의무가 있지만, B를 적용하면 ㉠을 실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 A는 현재 존재하는 세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그러한 정책의 실행을 의무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은 현재 세대의 이익을 극대화하므로 A에 따르면 갑국은 이를 실행할 의무가 있다. 반면 B는 현재 세대든 미래 세대든, 자국의 국민이든 타국의 국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은 실행하지 않는 것에 비해 오히려 총 이익을 10 감소시키는 정책이다(100-90-20=-10). 따라서 B를 적용하면 ㉠을 실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ㄴ. A를 적용하면 을국은 ㉡을 실행할 의무가 없지만, B나 C를 적용하면 ㉡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

↳ A는 현재 존재하는 세대의 이익의 총합만을 고려한다. 그런데 ㉡을 통해 현재 존재하는 세대의 이익은 청장년층에서 20이 감소하고, 노인 세대에서 20이 증가하므로 현재 존재하는 세대의 이익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을 굳이 실행할 의무가 없다고 볼 것이다.
B는 현재 존재하는 세대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다. ㉡을 실행하면 현재 존재하는 세대의 이익의 총합은 변하지 않지만, 미래 세대의 이익은 증가한다. 따라서 B에 따르면 ㉡을 실행해야 한다.
C는 '한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세대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례2〉에서 나타난 '가장 빈곤한 세대'는 '노인 세대'이다. ㉡은 그들의 이익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극대화하므로, C는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ㄷ. <사례1>에서 ㉠으로 인해 갑국 이외의 국가에서 감소하는 이익이 사라진다면 A, B, C 중 하나에 따른 판단은 변할 수 있다. (○)

↳ A나 C의 입장은 변하지 않지만, B의 입장은 반대에서 찬성으로 변화한다. ㉠으로 인해 변화하는 현재 존재하는 세대의 이익과 미래 존재할 세대의 이익의 총합이 기존 '100-90-20=-10'에서 '100-90=10'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갑국 이외의 국가에서 감소하는 이익이 사라진다면 B는 ㉠을 찬성할 것이다.

20 윤리적 소비의 조건

정답	③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철학)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5추리 20번, 24추리 17번, 24추리 23번					

Comment **#요건 #논리적 판단**

어떤 개념의 요건을 묻는다는 점에서 2025학년도 20번 문항을, 선지에서 논리적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2024학년도 23번 문항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는 무난하다고 느꼈겠지만, 선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문은 뻔한 얘기처럼 보여도 몇 가지 중요한 논리가 사용되는데, 이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틀릴 수밖에 없도록 선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선지는 직관과는 부합하기 어려운 사례들로 제시했습니다. 추리논증은 직관을 사용해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적고, 특히 철학/심리 등에서 직관에 반하는 선지가 자주 옳은 것으로 출제됩니다. 이런 문항의 경우, 그냥 형식논리를 묻는 모형추리 문항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정오 판단

ㄱ. 소비자가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없는 국가의 어떤 기업도 윤리적이지 않고, 해당 국가의 어떤 소비자도 부도덕하지 않다. (○)

↳ 기업이 윤리적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국가에는 사회적 환경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해당 국가의 모든 기업은 윤리적이지 않다. 한편, '부도덕한 소비'는 오로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윤리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 해당 국가의 소비자들은 아무도 부도덕한 소비를 하고 있지 않다.

ㄴ. 누군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소비를 하더라도 그 소비는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소비를 하더라도 그 소비는 부도덕하지 않을 수 있다. (○)

↳ '정보를 고려하고 자신의 소비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고하여 윤리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져야만' 윤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소비를 하더라도, 그 소비가 단순히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일 뿐 윤리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윤리적 소비라고 할 수 없다. 반면 누군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소비를 하였다면, 이는 분명 '윤리적 소비'는 아니지만, 그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더라면 부도덕한 소비라고 볼 수 없다. 2문단에 나와 있듯, 단순히 '윤리적 소비'가 아니라고 바로 '부도덕한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ㄷ. 아동 노동으로 만들어졌지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윤리적 소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윗글에서 나타난 윤리적 소비의 조건은 '사회적 환경(정보 제공)', '자신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 이해',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고', '윤리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지속 가능성 고려'이다. 그런데 만약 아동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더라도, 소비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였음에도, 해당 제품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공익이 아동 노동이라는 측면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윤리적으로 소비하고자 해당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이는 윤리적 소비로 볼 여지가 있다.

21 철학적 좀비

정답	④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철학)					
문항 유형	논증구조					
유사 기출	25추리 21번, 25추리 25번					

Comment **#논증 구조 파악 #귀류법**

㉠은 '물리주의'가 틀렸다는 내용인데, 관련한 내용이 19학년도 언어이해 19~21번과 20학년도 추리논증 22번, 19학년도 추리논증 19번 등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심신동일론과 연관된 문항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이 출제되었으니, 관련 내용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항은 논증 구조 문항 중에서는 다소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각 문장의 논리 관계를 파악하려면 내용을 일정 수준 이해해야 하기에, 구조도를 스스로 그리기는 어려웠을 듯합니다. 다만 '㉢+㉣'이 ㉤을 도출한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선지 ①, ②, ⑤번을 소거하고 ③, ④번 중에서 고민했다면 답을 고르기는 어렵지 않았을 듯합니다. 이처럼, 논증 구조 문항은 확실한 바를 바탕으로 소거하여 푸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사설/기출 등에서 논증구조 문항을 한두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다면, 시험 한 달전쯤에 기출 논증구조 문항을 몰아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번 틀렸다면 두 번도 틀릴 수 있는 유형이지만, 대비가 되어 있다면 쉽게 한 문항을 얻어가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해설

이하의 해설은 지문의 내용에 대한 해설이라기보다는, 글을 순서대로 읽어나가며 구조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고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i)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주장인 ㉠이 첫 문장에 제시되었으므로, 이후의 문장들을 통해 ㉠을 이해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ii) ㉠에서는 "모든 속성이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된다는 관점은 부조리"하다고 말했으면서, ㉡에서는 "모든 속성이 물리적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의 조건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의 후건("가능한 모든 세계에 대하여…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이 옳지 않다면 "모든 속성이 물리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어떤 속성은 물리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를 주장하는 ㉠은 강화된다. 따라서 우리는 ㉡ 이하의 논증이 "가능한 모든 세계에 대하여 각각의 세계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복제세계"도 "원본 세계에 대한 완전한 복제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을 밝히려는 것(㉡의 후건을 부정하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ii) ㉡은 하나의 전제를 제시하고 있고, ㉢은 그러한 전제에서 언급된 '물리적으로 동일한 복제 세계'를 설정하여 사고실험을 수행한다.

iv) ㉣을 읽으면, ㉢과 연결되어 "'좀비'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이에 대응되는 가능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때 ㉣이 ㉢의 근거가 되거나, ㉢이 ㉣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은 수평적으로 결합하여 다른 문장의 근거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v) iv에서 추론한 바와 같이, ㉢과 ㉣은 서로 결합하여 ㉤을 지지한다. 이는 ㉤을 여는 '즉'이라는 표현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vi) ㉤과 ㉥, ㉦에 따라, ㉧이 도출된다.

정오 판단

결론적으로, ㉢과 ㉣이 결합하여 ㉤을 지지하고, ㉤과 ㉥, ㉦에 따라 ㉧이 도출된다. 이때 ㉡과 ㉧은 충돌하며, ㉧에 따라 ㉡의 후건은 부정된다. 이에 따라 ㉠을 뒷받침하는 논증이 완성되므로, 정답은 ④이다.

22 메타윤리학의 세 입장

정답	①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철학)					
문항 유형	논쟁 및 반론					
유사 기출	25추리 22번, 25추리 24번, 24추리 22번					

Comment **#입장 파악 #사례 적용**

지문에서는 메타윤리학의 대표적인 세 입장을 제시하고 있고, 이중 A는 이모티비즘, B는 오류 이론, C는 허구주의에 해당하는 입장입니다. 리트에는 메타윤리학과 관련된 내용이 빈출되니, 이런 입장들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입장이 도덕적 표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파악해야 하고, 선지의 사례가 각 입장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추론해야 합니다. **전자는 독해력의 영역이고, 후자는 사례 적용과 관련된 문제 풀이 기술의 영역**이므로, 만약 틀렸다면 본인이 부족한 능력이 둘 중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오 판단

ㄱ. A에 따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발화하는 것과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을 좋게 본다"라고 발화하는 것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

↳ A에 따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선하다"는 그저 발화 주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에 대해 갖는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을 좋게 본다"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발화한 주체는 해당 진술에 대한 자신의 발화 의도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A와 B 모두 동의한다. (×)

↳ B에 따르면, 도덕적 표현을 발화하는 이들은 도덕적 표현으로써 객관적인 윤리적 사실에 관해 진술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나 A에 따르면 도덕적 표현을 발화하는 발화 주체의 의도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도덕적 표현으로써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ㄷ. 현실에서 진술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선하다"는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것에 B와 C 모두 동의한다. (×)

↳ C에 따르면, 도덕적 진술은 '윤리적 허구'에 따라 참이거나 거짓이다. 즉, C에 따르면 도덕적 표현은 참이거나 거짓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진술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선하다"는 "윤리적 허구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선하다"가 참이거나 거짓임에 의해 참이거나 거짓이 된다.

23 경험주의의 두 독단

정답	②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철학)					
문항 유형	논증 분석					
유사 기출	24추리 17번, 23추리 16번, 23추리 17번					

Comment **#논지 파악 #논리적 판단 #개념 간 관계**

'분석적으로 참' 정도의 개념은 기출 등을 통해 배경지식으로 아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어이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리논증치고는 어려운 글이라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도 아주 '기출스러운' 문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추리논증에서 복잡한 논증이 나오는 경우도 대비할 필요가 있을 듯하여 구성했습니다.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불가능한 문장은 아닙니다. 선후관계를 따져본다면, 어떤 개념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먼저 존재해서, '아, 이 표현하고 저 표현은 같은 의미구나, 그러면 둘은 동의성을 갖네'라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표현하고 저 표현은 동의성을 갖는구나, 그러면 이 표현의 사전적 정의를 저 표현을 활용해서 작성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사전적 정의가 동의성 이후에 구성되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지문을 완전히 이해해서 푼다기보단, 논리 구조만을 파악해서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우월한 전략이며, 현실적이라고 판단합니다. A(과인의 입장을 변형한 것입니다)가 어떤 주장을 어떤 논거로 비판하고 있는지, 각 주장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막상 선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문을 볼 때 너무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만 파악해서 정답만 골라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험은 '뛰어난 철학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학 적성'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므로, 애초에 깊은 철학적 내용을 100% 이해할 것을 의도하고 문항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오 판단

ㄱ. A는 분석성 개념이 순환적이지 않게 정의되려면 사전적 정의가 동의성에 기초하지 않아야 한다고 볼 것이다. (×)

↳ 지문에 제시된 A의 논지는 동의성을 사전적 정의를 통해 이해한다면 분석성 개념이 순환적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므로, 동의성이 사전적 정의에 기초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명시적으로 '사전적 정의가 동의성에 기초해 구성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전적 정의가 동의성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 분석성 개념이 순환적이지 않게 정의되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지도 않을 것이며, 사전적 정의가 동의성에 기초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지도 않을 것이다.

ㄴ. 심장동물의 집합과 신장동물의 집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내포적 연산자를 갖는 언어에서 "신장동물"과 "심장동물"이 진리치 보존적으로 치환될 수 있다. (×)

↳ 이는 지문으로부터 추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내포적 표현'의 예시로 제시되는 "필연적이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심장동물의 집합과 신장동물의 집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심장동물의 집합과 신장동물의 집합은 동일하다" 역시 거짓일 것이므로, "필연적이다"를 내포적 표현으로 갖는 언어에서 "신장동물"과 "심장동물"은 진리치 보존적으로 치환되지 않을 것이다.

ㄷ. 분석성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내포적 연산자를 갖는 언어가 존재할 수 있다면 ㉠은 약화된다. (○)

↳ 내포적 연산자에 대한 A의 반론은 그것이 분석성 개념에 호소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포적 연산자가 분석성 개념에 호소하지 않는다면, A의 반론은 약화될 것이다.

24 시간에 대한 A이론 대 B이론

정답	③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철학)					
문항 유형	강화약화					
유사 기출	25추리 24번, 24추리 18번, 24추리 19번					

Comment **#논지 파악 #입장 파악 #논쟁 분석 #강화약화**

철학 지문에 대한 경험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철학적 내용은 철학과 학부생들에게도 낯선 소재일 수 있으나, 논의의 진행 방식 자체는 철학의 전형적인 논증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철학적 사고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유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리논증은 철학 문제가 직접적으로는 8문제, 간접적으로는 그 이상 출제되는 영역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철학 도서를 읽는 것도 좋지만, 추리논증/PSAT의 관련 기출을 많이 풀고, 각 지문의 내용을 음미하며 읽는 연습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오 판단

① 현재의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갑1과 을1의 입장은 일치한다. (○)

↳ 갑1은 명시적으로 현재 대상들의 존재를 인정한다. 을1은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현재뿐이라는 갑1의 주장에 대해 진리에는 근거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진리도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므로 현재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②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을1의 주장은 약화된다. (○)

↳ 을1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 각각은 과거나 미래의 사실에 의해 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해 갑1을 논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의 논박은 부당해진다.

③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거짓이라면 갑2의 논지는 약화된다. (×)

↳ 갑2의 주장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진리가 존재한다면, 이는 과거 시제적 사실에 의한 것이다'로 압축될 수 있다. 이는 조건부 주장이므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갑2의 주장을 약화하지 않는다.

④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갈릴레오보다 키가 작지 않았더라도, 을2의 주장은 약화되지 않는다. (○)

↳ 을2는 과거에 대한 진리의 예시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갈릴레오보다 키가 작았다"를 예로 들 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갈릴레오보다 키가 작았음에 근거해 그의 논증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갈릴레오보다 키가 작지 않았더라도 그의 주장은 약화되지 않는다.

⑤ "A보다 키가 작다"가 "보다 키가 작다"와 "A"로부터 정의되어야 한다면, 갑3의 논지는 약화된다. (○)

↳ "A보다 키가 작다"가 "보다 키가 작다"와 "A"로부터 정의되어야 한다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갈릴레오를 통해 정의되는 어떤 속성을 소유해야 한다. 그런데 갑1에 따르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시대에 갈릴레오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속성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소유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갑3의 논지를 약화한다.

25 수학적 유명론

정답	①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철학)					
문항 유형	논쟁 및 반론					
유사 기출	25추리 23번, 24추리 19번					

Comment **#논쟁 분석 #입장 파악 #논지 파악**

유사한 소재가 18학년도 추리논증 18번, 24학년도 추리논증 19번 등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출의 문항들과 지문의 핀트, 선지의 핀트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색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문의 '갑'은 '수학적 실재론'에 대한 플라톤주의의 입장, '을'은 프레게의 수학철학입니다. 내용은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어도, 선지를 비교적 쉽게 구성하여 난이도를 낮추고자 의도했습니다. 혹시 이 문항을 틀렸다면 '독립적', '객관적', '환원'과 같은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A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주관과 무관하게, 실재로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문에서의 '환원'이란, 특정 개념을 보다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다른 요소들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개념은 리트에 정말 빈출되는 표현이고, '환원'의 경우 2010학년도 언어이해 '양자화학' 지문을 비롯해 과학, 철학 문항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정오 판단

ㄱ. 갑에 따르면, 세상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1+1=2가 참일 수 있다. (○)

↳ 갑에 따르면 수학적 진리는 마음과 언어에 독립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학적 진리인 1+1=2는 여전히 성립할 것이다. ㄱ 선지를 틀렸다면, 일상 언어에서의 '독립적', 철학에서의 '객관적'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ㄴ. "수학적 진리는 자연과학적 진리보다 덜 근본적이다"에 대해 갑은 동의하지만 을은 동의하지 않는다. (×)

↳ 명시적으로, 갑은 '수학적 진리는 자연과학적 사실을 통해 환원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자연과학적 진리들은 수학적 표현을 통해 작성되어야 하므로, 오히려 수학적 진리가 자연과학적 진리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을의 논지는 수학적 진리가 자연과학적 진리보다 덜 근본적이라는 주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ㄷ. 수학적 진리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갑과 을의 논지는 모두 약화된다. (×)

↳ 수학적 진리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갑의 논지는 약화되지만, 을의 논지는 약화되지 않는다. 을의 주장은 '수학적 진리가 만약 객관적이더라도 객관적 대상으로서 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수학적 진리는 객관적이다'를 함축하지 않는다.

26 워런팅 이론

정답	③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사회, 인문(심리)					
문항 유형	강화약화					
유사 기출	25추리 29번, 24추리 27번					

Comment **#실험 설계 #강화약화 #가설 검증**

내용은 직관에 부합하기 때문에 쉽게 읽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례가 길기 때문에 시간을 다소 소요했을 수 있고, 시간에 쫓겨 실수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오 판단

ㄱ. 대상 인물이 직접 작성한 내용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내용만 있는 반면 대상 인물의 친구들이 작성한 댓글은 대상 인물에 관한 부정적 내용만 있는 경우, C그룹이 대상 인물의 호감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면 ㉠은 약화된다. (○)

↳ ㉠에 따르면 대상 인물에 대해 타인이 제공한 정보는 대상 인물 스스로 제공한 정보보다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선지의 내용에 따르면 타인 제공 정보가 부정적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그룹이 긍정적인 자기 제시 정보에 초점을 두어 대상 인물을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므로, 이는 ㉠의 예측과 상충한다. 따라서 선지는 ㉠을 약화한다.

ㄴ. 대상 인물이 직접 작성한 내용과 대상 인물의 친구들이 작성한 댓글 모두 대상 인물에 관한 부정적 내용만 있는 경우, A그룹과 C그룹에서 대상 인물의 호감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면 ㉠은 강화된다. (×)

↳ ㉠은 사람들이 타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ㄴ에서처럼 A그룹과 C그룹의 부정적 평가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타인이 제공한 정보가 대상에 대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ㄴ의 실험 결과는 ㉠을 강화하지 못한다.

ㄷ. ㉠에 따르면, 대상 인물의 친구들이 작성한 댓글에 긍정적인 내용만 있는 경우 C그룹과 B그룹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

↳ ㉠은 사람들이 타인 제공 정보에 기초해 개인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C그룹과 같이 대상 인물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함께 보더라도 대상 인물의 친구들이 작성한 댓글에 기초해 대상 인물을 평가할 것이므로, 대상 인물의 친구들이 작성한 댓글에 긍정적인 내용만 있다면 이에 기초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은 B그룹이 대상 인물의 친구들이 작성한 댓글만 보므로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만 내릴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27 인지부조화 이론과 자기지각 이론

정답	②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심리)					
문항 유형	강화약화					
유사 기출	25추리 26번, 25추리 28번, 24추리 24번					

Comment **#강화약화 #실험 설계 #가설 검증**

지문에 제시된 두 견해의 내용은 무난하게 제시되었고, 유형 자체도 전형적인 견해-실험 구조의 강화약화 문항이지만, 정작 선지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실험2를 잘못 해석하여 오답으로 향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약화라는 유형 자체가, 조금이라도 접근법에 빈틈이 있다면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본시험 전에는 나름의 판단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오 판단

ㄱ. 실험 1에서 신념이 변화된 참가자가 신념이 변화되지 않은 참가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실험 결과는, A를 강화한다. (×)

↳ A는 자발적인 행동인 경우에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는데, 실험1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신념이 변화된 참가자가 많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도 A를 강화하지는 않는다.

ㄴ. 실험 2에서 기존 신념에 대한 확신도 변화를 측정한 참가자 중 확신도가 변화된 참가자가 확신도가 변화되지 않은 참가자보다 훨씬 적었다는 실험 결과는, B를 약화한다. (○)

↳ B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신념과 태도를 새롭게 인식하고, 행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신념과 태도를 형성한다는 내용이므로, 실험2에서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다는 행동을 했을 때 B대로라면 기존 신념에 대한 확신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확신도가 변화된 참가자가 적었다는 내용은 B를 약화한다.

ㄷ. 실험 1과 실험 2에서 신념 변화의 정도가 거의 동일하다는 실험 결과는, A를 약화하고 B는 강화한다. (×)

↳ A의 입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실험에서의 행동이 자발적인 행동인지가 중요하다. 실험1과 실험2에서는 선택권, 즉 자발성에 대한 차이를 두었으므로 두 실험의 결과가 비슷하다는 것은 A를 약화한다. B는 자발성을 중요시하지 않고 행동 그 자체를 보는 입장이므로 언뜻 생각하면 실험1과 실험2의 결과가 같다는 사실에 의해 강화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만약 실험1과 실험2의 변화 정도가 '낮음'으로 동일하다면 선지 ㄴ과 같은 원리로 B를 약화할 수 있으므로 B는 강화된다고 할 수 없다.

28 인지부조화 이론과 자기지각 이론

정답	①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인문(심리)					
문항 유형	강화약화					
유사 기출	25추리 28번, 25추리 26번, 18추리 34번, 16추리 27번					

Comment **#강화약화 #가설 검증 #실험 설계**

ㄱ과 ㄴ은 <가설>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정오를 판단할 수 있기에 출제하였습니다. ㄷ의 정오 판단에서 정답 여부가 갈렸을 듯한데, 이는 강화약화와 관련한 기본적인 감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B와 C 두 가설은 '신경회로의 강함 정도'를 매개로 연결되는데, 이를 이용해 만든 함정이 ㄷ입니다. 이렇게 가설과 실험을 통해 강화약화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은 사실상 배경지식과는 큰 관계가 없고, 강화약화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추리논증 기출의 강화약화 문항은 모두 와우듯이 학습해야 하는 것이 좋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오 판단

ㄱ. 실험1의 결과, 신경회로 재구성 속도가 비교적 빠른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최종 학습 성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내지 못했다면 A는 약화된다. (○)

↳ 선지의 결과는 신경회로 재구성 속도와 학습 성과가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각 개인의 신경가소성의 발현 속도와 학습 성과가 비례한다는 A를 약화한다.

ㄴ. 실험2의 결과,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실험의 전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다면 B는 강화된다. (×)

↳ B의 예상대로라면, 실험 2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줄다가 8주차 이후로는 아예 사용되지 않은 신경회로의 경우 약해지거나 소멸해야 한다. 그러나 선지의 결과는 그와는 반대로 신경회로가 계속해서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B를 약화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ㄷ. 실험2에서 16주차에 과제를 추가로 수행한 결과, 다수의 참가자들이 이전의 과제 수행 성과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면 B와 C는 모두 약화된다. (×)

↳ B와 C가 '모두' 옳다면, 실험 2의 참가자들은 과제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점점 약해지거나 소멸되어, 그에 따라 과제 수행 성과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결과를 통해, B와 C 중 최소한 하나는 틀렸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지의 결과만으로는 B와 C 중 무엇이 틀린 가설인지 확정할 수 없다. 가령 B가 틀리고 C가 맞더라도, B가 맞고 C가 틀리더라도 선지의 결과는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B와 C는 모두 약화되지 않는다.

29 의제 설정 이론과 프레이밍 이론

정답	⑤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사회					
문항 유형	논쟁 및 반론					
유사 기출	24추리 22번					

Comment **#논쟁 분석 #입장 파악 #비판**

미디어가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디어가 이슈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대중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 다루는 지문입니다. 이에 대해 두 견해 A, B를 소개하여 어떠한 지점에서 두 견해가 의견을 달리하고, 그중 B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B는 A를 포함하는 주장임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정오 판단

ㄱ. 대중들은 수동적인 수용자로서 미디어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정보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한다. (○)

↳ 대중들이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한다는 사실은, 대중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미디어가 강력하게 통제한다는 B의 주장을 반박하며 미디어의 영향력을 부정한다.

ㄴ. 사회적 의제의 우선순위는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활발한 정치에의 참여로부터 시작되며, 미디어는 단순히 이를 다른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

↳ 미디어가 사회적 의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A에 대한 반박이나, B도 그러한 점에서는 공통된 전제를 가지고 있기에 동시에 B에 대한 유효한 반론이다.

ㄷ.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정보는 특정한 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지식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기에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일관되거나 지속적이지 않다. (○)

↳ 선지에 따르면 대중들은 미디어가 의도한 대로 사건이나 이슈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의 배경지식에 비추어 서로 다르게 정보를 수용하므로 미디어가 대중에 대해 가지는 강한 영향력이 부정된다. 따라서 B에 대한 적합한 반론이다.

30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세 접근

정답	④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사회					
문항 유형	강화약화					
유사 기출	25추리 31번, 23추리 27번, 16추리 18번					

Comment **#개념 파악 #강화약화 #사례 적용**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ㄴ 선지의 경우 '자발성' 등의 개념을 잘못 파악해서 틀렸을 수 있습니다. 강화약화의 방향에 있어서는 별다른 함정을 만들지 않았으나, 다소 뭉뚱그려서 제시된 정의를 딱 필요한 만큼만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오 판단

ㄱ. 2019년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율이 극적으로 감소했으나, 주거지 실내 흡연율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은 법이 자발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을 약화한다. (×)

↳ 법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할 뿐, 주거지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논의의 대상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며 자발성 역시 이에 한해 분석되어야 한다. 즉,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 등으로 자발적으로 흡연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거지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시된 사실은 법이 자발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을 약화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ㄴ. 특정 건강 음료의 마케팅 캠페인 직후 한 달간 매출액이 같은 기간 전년대비 50% 증가했으나, 캠페인이 종료한 다음에 한번 음료를 구매한 소비자 중 다시 해당 음료를 구매한 소비자의 비율이 70%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마케팅이 개인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한다는 주장을 강화하지 않는다. (○)

↳ 만약 건강 음료 매출액 증가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건강 음료를 선택한 결과라면 마케팅 캠페인이 종료한 뒤에도 매출액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음료를 구매한 소비자가 캠페인이 종료한 뒤에 다시 음료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못할 것이다.

ㄷ. 건강 교육 캠페인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흡연자의 90%가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금연을 시도한 비율은 그중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교육이 단순한 정보 제공만으로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약화한다. (○)

↳ 교육을 통해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은 교육이 정보 전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근거가 되지만, 그중 실제로 행동 변화로 이어진 비율이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보 제공만으로는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31 선거에서 지배연합과 국제원조

정답	④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사회, 경제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5추리 31번					

Comment **#논지 파악 #개념 간 관계 #가설 검증**

㉠은 한 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과 ㉢은 한 국가(피원조국) 안에서 발생하는 ㉠ 현상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원조국)도 고려해야 하므로 제시문의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현상이 원조국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했다면 <보기>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항입니다.

정오 판단

ㄱ. ㉠은 지배연합의 크기가 작은 국가보다 큰 국가에서 더 자주 관측될 것이다. (×)

↳ 연임하고자 하는 지도자에게는 전체 국민의 공익보다는 기존 지배연합에 속한 사람들의 사익을 증진시킬 유인이 있는데, 지배연합의 크기가 클수록 그들의 사익과 전체 국민의 공익 사이의 괴리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지배연합의 크기가 작을수록 ㉠ 현상은 더 자주 관측될 것이다.

ㄴ. 경제적 수준 및 규모가 서로 동일한 군주제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원조할 때,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도 피원조국에 대한 원조국의 정치적 개입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은 ㉡을 뒷받침한다. (○)

↳ ㉡에 따르면 원조국은 적은 비용만 투입해도 원조국에 호의적인 지도자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를 피원조국으로 선호한다. 제시문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면, 지배연합의 크기가 작은 군주제나 전제정치에서 지도자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이 낮다. 서로 경제적 수준과 규모가 동일한 군주제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이루어진 원조금액이 높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는 지도자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원조국은 이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은 ㉡을 뒷받침한다.

ㄷ. 지배연합의 크기가 큰 국가들에 비해 작은 국가들 사이에서 ㉢이 더욱 약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을 뒷받침한다. (○)

↳ 지배연합의 크기가 작을수록 지도자가 지배연합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즉, ㉡에 따르면 지배연합의 크기가 작은 국가들 사이에서 빈곤율 또는 사망률과 피원조 금액 사이에 상관관계가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지배연합의 크기가 큰 국가들 사이에서 비해 작은 국가들 사이에서 빈곤율 또는 사망률과 피원조 금액 사이의 상관관계가 더욱 약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을 뒷받침한다.

32 순수출과 GDP

정답	①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경제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5추리 32번					

Comment **#개념 파악 #계산 #추론 #논리적 판단**

생소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을 개념인 GDP를 바탕으로 구성된 문항입니다. 표에 제시된 수치와 제시문의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되지 않은 수치를 추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액과 순수출을 바탕으로 순수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 부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시된 정보를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오 판단

ㄱ. 2023년 병국의 수입액은 같은 해 갑국의 민간 소비 및 투자와 정부지출을 더한 값보다 크다. (○)

↳ 갑국의 순수출은 200억 달러, 을국의 순수출은 650억 달러이므로, 병국의 순수출은 -850억 달러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을국은 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갑국은 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므로, 을국의 수입액은 곧 병국의 수출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병국의 수출액은 300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1150억 달러이다. 이는 갑국의 민간 소비 및 투자와 정부지출을 합친 1100억 달러보다 크다. 따라서 ㄱ은 적절하다.

ㄴ. 2024년 을국의 갑국에 대한 수출액보다 병국에 대한 수출액이 더 크다. (×)

↳ 갑국의 순수출은 -200억 달러, 을국의 순수출은 20억 달러이므로 병국의 순수출은 180억 달러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을국의 수입액은 병국의 수출액과 일치하므로 병국의 수출액은 535억 달러, 수입액은 355억 달러이다. 갑국은 오직 병국에게만 수출하고, 갑국의 순수출이 -200억 달러이고 수입액이 520억 달러이므로 갑국의 수출액은 320억 달러이다. 또한 을국의 순수출은 20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535억 달러이므로 수출액은 555억 달러이다. 따라서 을국이 병국에게 수출한 금액은 병국의 수입액인 355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를 뺀 35억 달러이고, 을국이 갑국에게 수출한 금액은 555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를 뺀 나머지 520억 달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ㄴ은 적절하지 않다.

ㄷ. 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감소하였으므로, 갑국 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되었다. (×)

↳ 2023년 갑국의 순수출은 200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320억 달러이므로 수출액은 520억 달러이다. 또한 2024년 갑국의 순수출은 -200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520억 달러이므로 수출액은 320억 달러이다. 따라서 2023년에 비해 2024년 갑국의 GDP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안정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GDP 중 국내에 입지하게 된 해외 기업의 비중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수출액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ㄷ은 적절하지 않다.

33 정족수

정답	④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규범					
문항 유형	모형추리					
유사 기출	21추리 33번					

Comment **#모형추리 #논리적 판단**

<규칙>의 경우 상식적인 내용이고, 절대적인 난이도 역시 최근의 모형추리 문항에 비하면 쉬운 편입니다. 다만 처음에 문제 풀이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면 시간을 많이 소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A, B, D, E 각 정당의 가능한 찬성/반대 여부를 모두 케이스로 분류하여 풀었다면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보기>의 각 선지가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해당 선지의 가정을 각각 검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했다면 빠르게 각 선지의 정오를 판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각 선지를 검토할 때는 해당 선지가 거짓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가정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오 판단

ㄱ. A당 의원이 X에 "찬성"을 기표했다면, X는 통과된다. (×)

↳ A당 의원이 X에 "찬성"을 기표한 경우,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찬성" 수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A당과 E당의 기표가 "찬성"으로 동일하고, B당과 D당이 "반대"로 기표한 경우이다. 이때 출석의원은 80명, "찬성"은 45명, "반대"는 35명이다. 만약 안건 X가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 제정안이라면 각 안건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X가 통과된다고 확정할 수 없다.

ㄴ. A당 의원이 X에 "반대"를 기표했다면, X는 통과되지 않는다. (○)

↳ A당 의원이 X에 "반대"를 기표했을 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찬성" 수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A당과 E당의 기표가 "반대"로 동일하고, B당과 D당이 "찬성"으로 기표한 경우이다. 이때 출석의원은 80명, "찬성"은 30명, "반대"는 45명이다. 이 경우 X가 헌법 개정안, 법률 제정안, 법률 개정안 중 어떤 안건이더라도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찬성" 수가 최대가 되는 경우에도 X는 반드시 부결되므로 ㄴ은 옳다.

ㄷ. B당 의원이 X에 "찬성"을, D당 의원이 "반대"를 기표했다면, X는 통과되지 않는다. (○)

↳ 문제의 조건에 따라 D당 의원은 A당 또는 B당 의원과 동일하게 기표해야 하는데, ㄷ의 가정에서는 B당과 D당의 기표가 달라지므로 D당은 A당과 같게 기표해야만 한다. 따라서 A당 역시 "반대"로 기표한 것이며, 이 경우 출석의원은 80명, "반대"는 최소 50명이 된다. 30명이 "찬성"으로 기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개정안, 법률 제정안, 법률 개정안 중 어느 안건도 통과될 수 없다.

34 형제들의 나이

정답	③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					
문항 유형	모형추리					
유사 기출	25추리 34번, 23추리 34번, 14추리 33번					

Comment **#논리적 판단 #케이스 분류**

형식에 있어 2025학년도, 2023학년도 추리논증 34번을 참고했고, 일상 언어의 논리적 함축을 묻는다는 지점에서는 2014학년도 추리논증 33번을 참조했습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갑과 병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 즉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참이며, 하나는 무조건 거짓임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만 파악했다면 쉽게 두 케이스를 분류하여 선지를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거짓 문항에서 두 입장이 모순된다는 점에 기인하여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은 기출에 자주 나온 유형입니다. 이 문항은 같은 세트의 33번, 35번 문항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근 기출의 모형추리보다는 다소 쉽게 제작하였습니다.

해설

갑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둘째, 셋째는 각각 나이가 다르다. 그렇다면 문제의 조건에 따라 셋째와 넷째는 쌍둥이이며, 나이가 같아야 한다. 한편 병의 주장에 따르면 쌍둥이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가 있으므로, 셋째와 넷째가 쌍둥이라는 갑의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ⅰ) 갑이 참이며 병이 거짓인 경우, ⅱ) 갑이 거짓이며 병이 참인 경우로 두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다. 이때 각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ⅰ) 갑이 참이며 병이 거짓인 경우

이 경우 갑, 을, 정은 참이고 병은 거짓이 된다.

- 갑의 주장에 따라, 첫째, 둘째, 셋째는 나이가 다르고, 셋째와 넷째는 쌍둥이로 나이가 같다.
- 을의 주장에 따라, 갑과 을은 쌍둥이이며 둘은 나이가 같다.
- 정의 주장에 따라, 정이 첫째이다.

즉, 정이 첫째, 병이 둘째이며, 갑과 을은 나이가 같은 셋째 혹은 넷째이다.

ⅱ) 갑이 거짓이며 병이 참인 경우

이 경우 을, 병, 정은 참이고 갑은 거짓이 된다.

- 을의 주장에 따라, 갑과 을은 쌍둥이이며 둘은 나이가 같다.
- 병의 주장에 따라, 쌍둥이는 첫째와 둘째이거나, 둘째와 셋째이다.
- 정의 주장에 따라, 정이 첫째이다.

이때 정은 첫째로 확정되므로, 병의 주장에 따라 쌍둥이가 첫째와 둘째라면 을의 주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쌍둥이는 둘째와 셋째이며, 각각 갑 또는 을이다.

즉, 정이 첫째, 갑과 을은 나이가 같은 둘째 혹은 셋째이며, 병이 넷째이다.

정오 판단

ㄱ. 갑과 을은 쌍둥이이다. (○)

↳ 케이스 ⅰ에서도, ⅱ에서도 갑과 을은 나이가 같은 쌍둥이이므로 반드시 옳다.

ㄴ. 을이 막내일 수는 없다. (×)

↳ 케이스 ⅰ에서, 을이 넷째인 것이 가능하므로 옳지 않다.

ㄷ. 쌍둥이들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가 있다. (○)

↳ 케이스 ⅰ에서도, ⅱ에서도 정이 나이가 가장 많고, 쌍둥이는 그렇지 않으므로 반드시 옳다.

35 개발자 배정

정답	③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					
문항 유형	모형추리					
유사 기출	25추리 35번					

Comment **#모형추리 #논리적 판단 #케이스 분류**

2025학년도 추리논증 35번을 모델로 제작했으나, 요구되는 아이디어를 추가하였으며, '한 개발자가 여러 팀에 배정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습니다. 가능한 경우를 논리적으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인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평소 모형추리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해 둔 뒤, 실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가 확보되었다는 조건 하에 자신감을 갖고 우직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설

1~9년차를 나누어 배정하는 상황에서, 어느 팀에도 배정되지 않는 개발자는 없으므로 각 팀 인원의 총합은 최소 9명이고, 각 팀은 최대 4명의 개발자로 구성되므로 한 개발자가 여러 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복을 고려하지 않을 때) 각 팀 인원의 총합은 최대 12명이다.

또한 (각 팀 소속 개발자 연차의 합)이 모두 동일한데, 연차를 합친 값은 최소 45에서 최대 71이므로(9년차 개발자가 팀 3개에 들어가고 8년차가 팀 2개에 들어가는 상황), 각 팀 소속 개발자 연차의 합은 45, 48, 51, 54, 57, 60, 63, 66, 69를 3으로 나눈 15~23 중 하나이다.

1년차 개발자를 배정하는 팀에는 2, 3년차 개발자를 배정하지 않고, 2년차 개발자를 배정하는 팀에는 3년차 개발자를 배정하지 않으므로 1~3년차 개발자는 모두 다른 팀에 배정된다. 또한 프론트엔드팀에 4, 5년차를, 백엔드팀에 6, 7년차를, QA팀에 1, 8년차를 배정한다.

프론트	4 5 (9)	백엔드	6 7 (13)	QA	1 8 (9)

(괄호 안의 숫자는 연차의 합)

프론트엔드팀에 2년차 개발자를 배정하는 경우와, 3년차 개발자를 배정하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보자.

1) 프론트엔드팀에 2년차를 배정하는 경우

백엔드팀에 3년차 개발자가 배정된다. 프론트엔드팀 연차의 합이 11이 되고(2, 4, 5) 7년차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만일 백엔드팀에 9년차를 배정하는 경우 백엔드팀 연차의 합이 25가 되어 프론트엔드팀 연차의 합과 맞출 수 없다.

1-ⅰ) 프론트엔드팀에 9년차를 배정하는 경우

프론트엔드팀 연차의 합은 20이 된다. 백엔드팀에 4년차를 배정하면 된다. 이때 프론트엔드팀은 2, 4, 5, 9, 백엔드팀은 3, 4, 6, 7이 된다. QA팀은 연차 11을 추가로 배정해야 하는데 4년차+7년차, 5년차+6년차의 두 조합만 가능하다. (이미 8년차는 있고, 9년차 배정하려는 경우 2년차와 1년차가 같이 들어오는 문제가 생긴다)

프론트	2 4 5 9	백엔드	3 4 6 7	QA	1 4 7 8

프론트	2 4 5 9	백엔드	3 4 6 7	QA	1 5 6 8

두 케이스가 가능하다.

1-ⅱ) 프론트엔드팀에 9년차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9년차도 소속 팀이 있어야 하므로 QA팀에 배정되어야 한다. QA팀은 일단 1, 8, 9로 연차의 합이 18이 되는데, 만일 인원이 하나 더 늘어난다면 4년차 이상만 가능하다. 4년차 이상이 들어오면 연차의 합이 22 이상이 되는데, 이 경우 프론트엔드팀과 맞출 수 없다. 따라서 QA팀은 1, 8, 9로 고정이고 모든 팀의 연차 합은 18이다. 그런데 백엔드팀에는 3, 6, 7년차가 있어 합이 16인데, 2년차를 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

2) 프론트엔드팀에 3년차를 배정하는 경우

백엔드팀에 2년차가 배정된다. 프론트엔드팀 연차의 합이 12가 되고(3, 4, 5) 7년차 이상 개발자를 배정해야 한다. 만일 백엔드팀에 9년차를 배정하는 경우 백엔드팀 연차의 합이 24가 되어 프론트엔드팀 연차의 합과 맞출 수 없다.

2-ⅰ) 프론트엔드팀에 9년차 개발자를 배정하는 경우

프론트엔드팀 연차의 합은 21이 된다. 백엔드팀에는 2, 6, 7년차가 존재하는데 6년차를 추가로 배정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2-ⅱ) 프론트엔드팀에 9년차 개발자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9년차도 소속 팀이 있어야 하므로 QA팀에 배정되어야 한다. QA팀은 일단 1, 8, 9로 연차의 합이 18이 되는데, 만일 인원이 하나 더 늘어난다면 4년차 이상만 가능하다. 4년차 이상이 들어오면 연차의 합이 22 이상이 되는데, 이 경우 프론트엔드팀과 맞출 수 없다. 따라서 QA팀은 1, 8, 9로 고정이고 모든 팀의 연차 합은 18이다. 백엔드팀에는 2, 6, 7년차 개발자가 있어 합이 15인데, 3년차를 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둘 뿐이다.

프론트	2 4 5 9	백엔드	3 4 6 7	QA	1 4 7 8

프론트	2 4 5 9	백엔드	3 4 6 7	QA	1 5 6 8

정오 판단

ㄱ. 2년차 개발자는 프론트엔드팀에 배정된다. (○)

ㄴ. 프론트엔드팀 소속 개발자들의 연차 합은 20이다. (○)

ㄷ. 4년차 개발자와 7년차 개발자는 배정된 팀이 같다. (×)

36 스프링-댐퍼 시스템의 전달함수

정답	④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과학기술(물리)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3추리 39번, 22추리 27번, 13추리 32번					

Comment **#사례 적용 #수리적 판단**

23학년도 추리논증 34번과 같은 느낌을 의도하고 제작된 문제입니다. 지문에 라플라스 변환 등의 개념과 여러 수식이 등장하여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인지적 부담이 클 수 있으나, 주어진 대로 대입만 잘해서 계산했다면 선지의 정오판단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일부 과학/기술 문항에 대하여서는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시도보다 선지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사고를 정확하게 하는 연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루트 계산을 해서 당황한 분과 수험생도 있었을 듯한데, 루트 계산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되므로, 한 번은 경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출제해보았습니다.

정오 판단

ㄱ. 고유 진동수와 감쇠비는 각 시스템마다 정해지며, 물체의 질량이 다른 두 시스템은 고유 진동수와 감쇠비가 다르다. (×)

↳ 선지의 앞부분은 옳으나, 고유 진동수와 감쇠비는 물체의 질량 m 외에도 각각 k, k와 c를 추가 변인으로 갖는다. 따라서 두 시스템의 m값이 다르더라도, 두 시스템의 k와 c를 적절히 조절하여 고유 진동수와 감쇠비를 같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ㄴ. 차량A와 차량B 중 외부 힘에 의한 진동이 적은 차를 선호하는 사람은 차량B를 선택할 것이다. (○)

↳ 차량 A와 B (m, c, k)는 각각 A(10, 30, 90)과 B(5, 60, 80)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차량의 감쇠비 $\zeta = \frac{c}{2\sqrt{km}}$를 계산하면, A는 1/2로 부족 감쇠 상태, B는 3/2으로 과도 감쇠 상태이다. 둘 중 외부 힘에 노출된 뒤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진동이 더 적은 것은 과도 감쇠 상태에 있는 차량 B이므로, 진동이 적은 차량을 선호하는 사람은 B를 선택해야 한다.

ㄷ. 차량B의 용수철 상수를 반으로 줄인 경우의 감쇠비는 차량A의 감쇠계수를 3배 늘린 경우의 감쇠비보다 크다. (○)

↳ 선지에서 제시된 바를 바탕으로 차량 A와 B (m, c, k)를 다시 정리하면, 각각 A(10, 90, 90)과 B(5, 60, 40)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감쇠비를 계산하면 A는 $\frac{3}{2}$, B는 $\frac{3\sqrt{2}}{2}$이다. 따라서 B의 경우가 더 크다.

37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실험과 변압기

정답	③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과학기술(물리)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4추리 40번					

Comment **#원리 파악 #개념 파악**

평이한 난이도의 후반부 문항을 상정하고 구성한 문항입니다. 다만, '전류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를 이끌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전류를 유도한다는 중심 원리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경우 정오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코일 내에서의 작은 코일 또는 자석의 '움직임'은 결국 자기력선 양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그 움직임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이는 ㄴ과 ㄷ의 정오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정오 판단

ㄱ. 변압기를 통해 유도된 전압 크기를 낮추고자 할 때, 1차 코일의 감은 수를 크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 마지막 문장에서, '전압은 2차 코일의 감은 수를 1차 코일의 감은 수로 나눈 비율'과 비례한다고 주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전압의 크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1차 코인의 감은 수를 크게 만드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ㄴ. 교류 전류는 흐르면서 계속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

↳ 3문단의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전류의 '변화'가 주변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1차 코일에 교류 전류를 계속 흘려주면 2차 코일의 자기장은 계속 변화'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변압기에 별다른 조작 없이 교류 전류를 흘려주는 동안 2차 코일의 자기장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은, 교류 전류가 흐르면서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옳은 추론이다.

ㄷ. ㉠에서 작은 코일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작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만 변화를 주었을 경우 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양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

↳ 작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하면 그 주변의 자기장에도 변화가 발생하므로, 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양도 변화한다. 이를 자기장의 정도가 고정된 자석이 코일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8 효소의 억제제

정답	⑤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과학기술(생명)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5추리 40번					

Comment **#개념 파악**

생소한 내용일 수 있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날림 없이 읽었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역적 저해제의 유형에 따라 효소의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보기> ㄴ 관련). 또한 제시문의 첫 문단에 도입 느낌으로 제시된 정보라도 <보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잊지 않고 적절히 적용해야 합니다(<보기> ㄷ 관련).

해 설

기질의 농도에 따라 반응속도가 높아진 A는 경쟁적 저해제이고, 효소-기질 복합체와만 결합하는 C는 무경쟁적 저해제, 남은 B는 비경쟁적 저해제이다.

정오 판단

ㄱ. 반응 속도가 V_{max} 미만일 때, A가 존재하는 경우 효소와 기질의 결합이 저해된다. (○)

↳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 대신 효소의 활성부위에 결합하여 효소의 작용을 감소시킨다.

ㄴ. B가 담긴 통의 기질 농도를 아무리 높이더라도 효소의 반응속도는 V_{max}에 도달할 수 없다. (○)

↳ 무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에 결합하므로, 기질의 농도가 아무리 높아도 저해제가 존재하는 이상 효소의 반응 속도는 저해될 수밖에 없다.

ㄷ. C는 효소에 결합한 이후라도 다시 분리될 수 있다. (○)

↳ 무경쟁적 저해제는 가역적 저해제의 일종으로, 효소와 결합한 다음에도 효소에서 분리될 수 있다.

39 생명공학의 디스플레이 기술

정답	④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과학기술(생명)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5추리 39번					

Comment **#차이 파악 #개념 이해 #추론 #원리 파악**

제시문이 설명하는 두 디스플레이 기술의 차이점을 면밀하게 이해할 것이 요구되는 문항입니다.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단계 추론을 거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문의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를 유전자와 연결하여 발현하는 과정에 비해 단백질을 직접 발현시키는 것이 더 많은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제시문에서 명시적으로 '단백질 번역 후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 더 적은 조작이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오 판단

ㄱ. ㉡은 ㉠에 비해 일반적으로 원하는 단백질을 전시하기 위해 더 많은 인위적인 조작이 요구된다. (×)

↳ ㉡은 ㉠과 달리 '단백질 번역 후 변형'이 일어나므로, 추가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할 필요가 적다. 더불어,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이 추가로 요구되지만, '간혹'과 같은 서술을 볼 때 이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ㄴ. ㉡은 ㉠에 비해 사람 체내에서 단백질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

↳ ㉡은 ㉠과 달리 포유류 세포에서 단백질을 직접 발현시키므로 사람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환경에서 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 체내에서 단백질 간 상호작용의 양상을 파악하기 용이할 것이다.

ㄷ. ㉡은 ㉠에 비해 사람 체내에서 단백질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

↳ ㉡은 ㉠에 비해 라이브러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하나의 라이브러리에 전시할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더 적을 것이다. 따라서 ㉡은 ㉠에 비해 특정한 표적 단백질과 동일한 개수의 변이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더 많은 개수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할 것이다.

40 DNA 슈퍼코일링

정답	④	난이도				
		하	중하	중	**중상**	상
내용 영역	과학기술(생명)					
문항 유형	언어추리					
유사 기출	25추리 40번					

Comment **#개념 파악 #원리 파악 #사례 적용 #복합적 정보 판단**

제시된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를 실험 결과에 대응시킬 것이 요구되는 문항입니다. 한편 <보기> 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여러 부분에 존재하는 정보를 종합하여 실험 결과를 해석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정오 판단

ㄱ. 105bp의 원형 DNA가 이중나선의 분리나 슈퍼코일링 없이 이완된 상태로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 10번 미만의 나선 회전이 형성된 상태일 것이다. (×)

↳ 원형 DNA가 이완된 상태에 있으려면 ⅰ)DNA 나선 1회전 당 10.5개의 염기쌍을 갖거나, ⅱ)DNA 이중나선의 두 가닥을 분리하거나, ⅲ)슈퍼코일링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선지에서는 이중나선이 분리되거나, 슈퍼코일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DNA 나선 1회전 당 10.5개의 염기쌍을 가져야 하며, 105bp의 원형 DNA가 이완된 상태에 있으려면 10번의 나선 회전이 형성된 상태여야 한다.

ㄴ. <실험>은 "DNA 밴드에 DNA가 응축된 상태로 존재할수록 밴드가 더 진한 형태를 띤다"라는 가설을 강화한다. (○)

↳ 〈실험〉 결과 밴드2가 더 멀리 이동했고 더 진한 형태인데, 제시문에 따르면 '더 많이 응축될수록 전기장이 형성되었을 때 이동하는 정도가 더 많다'. 따라서 더 멀리 이동한 밴드2가 더 많이 응축된 것이므로, DNA 밴드에 DNA가 응축된 상태로 존재할수록 밴드가 더 진한 형태를 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ㄷ. 실험 종료 후, 밴드1과 밴드2의 DNA들은 구조적 긴장이 완화된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

↳ 제시문에 따르면 DNA는 슈퍼코일링을 통해 항상 이완된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슈퍼코일링이 나타난 두 밴드의 DNA들은 모두 이완된 상태에 있을 것이고, 구조적 긴장의 정도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